



참여·협력·영광

서울大同窓會報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2005년 3월 15일

(1976년 4월 24일 창간)

【월간】 제324호

http://www.snuu.or.kr

동창회 활성화

060-604-0011

전화 한 통화로

발행인 林光洙 / 편집인 孫一根 / 편집주간 許瑄 / 발행처 서울대학교총동창회 121-8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8-2 ☎ 702-2233 FAX: 708-0755

선배의 정성모아 硏學의 꿈 펼치기를!



서울대인의 책임을 다 하렵니다 <관련기사 18~19면>



冠言會 2회 언론인 대상 시상 <관련기사 3면>



관악춘추

허마다 3월 초순이면 아직 꽃은 피지 않았어도 신입생들이 그 발랄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모습으로 학교 교정을 밝게 채우면서 봄기운이 완연해 진다. 최근 몇 년 들어 그런 신입생들을 보면서 생기는 의문이 있다. 그 학생들이 앞으로 대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과연 어느 정도 서울대에 대한 소속감과 긍지를 키우고 졸업하게 될까 하는 것이다.

서울대의 학부 구조조정이 이루어진 후 신입생의 모집단위는 학과에서 학부 또는 계열별로 바뀌었다. 1학년 1년 동안은 반으로 나뉘어 지내다가 2학년에 올라가서야 학과에 진입하게 된다.

다. 그런데 학과에 진입 한 이후도 학생들은 1학년 때의 반 소속 친구들과 주로 활동이 어울리면서 같은 학과의 선배들은 물론 동급생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로 졸업을 하게 되는 일이 흔하다는 것이다. 그것도 정원이 20명 전후인 소단위 학과라고 예외가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과에 대한 소속감이 있을 리도 없다.

게다가 요즘은 부정실, 복수전공 제도가 확산되면서 학과에 대한 소속감을 더욱 희박시켜 가고 있는 형편이다. 같은 전공의 학문 공동체에 속하며

교수, 동급생, 선배대간에 이루어지던 학문적·인간적 교류나 동질감 같은 것도 가대하기 어렵게 되었다. 학과별로 입학해 소속 학과를 평생 자신의 정체성처럼 지니고 살게 되면 예전 세대에게는 보통 놀라운 현상이 아니다.

흔히 고려대에는 '고려대 정신', 연세대에는 '연대문화'라고 일컬어지는 공동체 의식과 학교 교유의 컬러가 있다고 말할 만하다. 그것은 재학시절에 형성되어 졸업 후에도 이어져 그 대학 출신의 비교적 공통된 특점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것은 학과보다 더 확실한 정체성을 만들어 주는 것 같다.

그런데 서울대의 경우에는 학교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특유의 공동체 문화가 없었던 것 같다. 워낙

단과대학
별로 오랫동안
동안 흩어져
있었던

공동체 의식 형성을 위한 노력

탓에 단과대학별, 그 중에서도 학과별 문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기제도 눈에 띄게 약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이다. 그것을 대체할 만한 서울대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다른 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 서울대가 그저 막연한 지식을 축적하고 바빠 졸업중이나 파고 나가는 학원 같아 되어 버리고 학벌이나 만들어 나가는 장소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珍)

동문을 찾아서 李海瓚 국무총리 10~11면 특별 인터뷰 洪錫柱 주미 대사 12~13면

만든 사람: 논설위원 金哲洙, 金昌悅, 朴世熙, 林炳斗, 李炯均, 南仲九, 金錫錫, 安熙燮, 丘月煥, 宋錫赫, 金好俊, 洪性萬, 安國正, 李成俊, 朴明珍, 李元龍, 李慶衡, 金鍾勳, 金仁土, 徐玉樞, 李元燮, 高永才, 姜天錫, 嚴基永, 朴時龍, 辛京根, 朴聖延, 朴勝俊, 金鎮國 편집장 安熙燮 편집부 기자 朴宰亨, 裴賢燮, 金南柱, 황교부장 金千鶴

“도전정신으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되길”

본회·단대 동창회서 2백12명에 장학금 4억8백여만원 수여

본회(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장 林光洙)는 지난 2월 23일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2005학년도 1학기 장학금 및 특직장학금 수여식을 갖고, 모교 재학생 1백11명에게 2억4천2백28만2천5백원의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이로써 각 단과대학(원)동장회
가 재학생 1명1명에게 1인6전6백
37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해
2005학년도 1학기 장학금은 총 2
백12명에게 4억8백65만2천5백원
이 지급됐다.

지하철에 비해 장학생수가 감소한 이유는 올해부터 모교가 학년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의 졸업여거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한에 따라 본회에서는 이번 1학기부터 일반 장학생 가운데 50%를 등록금 부담이 큰 대학원생으로 구성했기 때문이다.

본화 詩 題 사후의 시호로
시작된 이 글 형제에게 재가(在加)한
은 신시를 통해 “착하여 국민
모두가 아쉽고 원망이 한 해였
으니 우여유저 천만년에서 보려
조 탐강진, 조 고공형위에서 세
계 협력국가 호상위 기록, 주원국
을 뒤흔든 찬탈정변 등 ‘우리도 참
을 있다가’ 시간장을 가지고 정삼
을 향해 달려가는 끈질긴 도전정
신이 있으며, 때마침 바깥바람
이 불었다”고 언급하고 “이 나라
열리터로서 큰 꿈을 가지고 자기
분과를 수거하게 되어 작별 없는
최고의 전문가가 되며 생환한 것
은 마음껏 누리라 이웃과 나누고
배우고 존경하는 서술대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모교 母校(모교)는 모교 鄭某(모교) 鄭某(모교)를 대신한 격려사에서 "앞으로 한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사회 제고의 명문대 졸업생들과 각종 분야에서 당당히 맞서야 하며 이것이 서울대인의 사명이다"라는 취지에 대한 책임이라고 밝히고, 모교 재학생들이 더 좋은 시설에서 더 훌륭한 교육 아래 더 열심과 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고 강조하고 최후를 위하여 키워서 사회의 리더로 배출하는 뜻으로 장학금이야말로

도세 1학기 장학금 수여
校總同窓會 財團法人 光岳會

林光遠회장이 장학생들에게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선물주인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로 사회에 유익을 창출하는 훌륭한 투자이며, 이러한 숭고한 사업에 적극 동참해주신 많은 선배 동문 여러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학금 수여를 마친 후 姜檉植(법학과 박사과정)군이 장학생을 대표해 “많은 선배들께서 전담해 주신 정성에 보답하기 위해 모교로부터 받은 장학금과 배움의 기회를 세계 각국의 한학을 빛내고 그 체를 이끌어 나가는 데 사용하겠다”고 답사했다. 또 이날 축하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黃弼弘(성악95-03)동문이 金志勳(기악과 3년)군의 피아노 반주에 맞춰 趙允南의 곡조 ‘산후’를 연주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회 **金道和** 회
문, **林光洙** 회장, **孫一根** 상임부회
장, **郭永範**·**洪性大**·**鄭世浩**·**鄭八**
道 부회장, **계단병인** 관악회 **明泰**
鉉·**鄭哲圭**·**鄭仁性**·**朴明潤**·**金壽潤**
이사, **許** 장사무총장, **李** 지출금에
사후총장을 비롯해 모교 **李鎭**·**이**
총장, **李美蘭** 학생처장, 수석교무
장인 **金永煥** 회장, **全鍾基** 대[지]

牧村 5父子 株式会社 代表取締役

고 교장, 李元圭 前산림청 임업연구원, 尹正哲 가천대의 길병원장, 일성 李道恒 교문, 엠코테크놀로지 코리아 金綏雄 전무, 창아치과병원 韓榮원장, 드림위즈 李權振 사장, 상영무역 金泰善 부장 등이 참석했다.

《表》

모교 李鎭仁부총장이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孫一根상임부회장이 장학금을 수여했다.

계항공공학부 석사2년)·李宗珉
(컴퓨터공학부 4년)·姜碩柱(원자
핵공학과 4년)군에게 총 6백44만
8천원을 수여했다.

한국어인 金壽順(AMP 4기
편약회 이사)이사가 설립한 '金壽
順 특기장학금'을 통해 이날 김이
사는 모교 저학장 金鍾幹(의학과
4년)과 법학부 李炫廷(4년)·申
빛나라(2년)양에게 4백만원, 이
들 李志鎬(의학77-83 시립보리
매병원 정형외과 과장)등인이 설
립한 '李志鎬 특기장학금'으로 盧
兌문(외과과 1년)양에게 2백만원
을 지급했다.

수학고동창회(회장 金永煥)가 설립한 '수학고동창회 특기장학금'으로 김희장은 이날 모교 수리과학부 徐運宇·李振旭·陳基植(이하)군에게 총 3백만원, 학교법인 삼익(주인) 洪性大(수학'57-63년 회 부회장·관악회 삼익이사)이 자장이 설립한 '洪性大 특기장학금'을 통해 홍이사는 이날 모교 盧秉佑(수리과학부 4년)양, 崔煥榮(원자핵공학과 3년) 군에게 4백만원을 전달했다.

경원대 **李吉女**(의학51·57 본 회 부회장·의대동창회장)총장이 설립한 '**李吉女 특기장학금**'으로 모교 신입생 **金秀雍**(농경제사회학부)·**池惠林**(기계항공공학부)등이 총 4백70만7천원을 받았다.

일성 張世一(전기59-63 권의 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張世一 특지정학금'을 통해 이날 대리로 참석한 李道恒교수가 모교 신임생 金黎完(경영학과)·朴宰成(식물생 산신림과학부)군에게 4백68만 원의 장학금을 전했다.

코리야워드스감과니 鄭八道(Altan 1기 본회 부회장)대포가 부인 李慈偉여사와 공동명으로 설립한 '鄭八道·李慈偉 독지장학금'으로 이날 鄭희장은 모교 徐鼎燮(지공환경시스템공학부 2년)·夫恩英(경영학과 3년)양에게 3백89만 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3면에 계속〉

각 단대 동창회 장학금

가 단과대학(원)동창회 1학기 장학금 수여현황은 다음과 같다.

▲생활대동창회(회장 劉頌玉)=3명:3백만원 ▲간호대동창회(회장 俞淑子)=4명:3백만원 ▲농생대동창회(회장 尹勳煥)=2명:2백만원 ▲법대동창회(회장 丁

海昌)=15명; 2천6백72만원 ▲사대동창회(회장 李相周)=5명; 1천57만원 ▲상대동창회(회장 崔容履)=40명; 7천1백45만4천원 ▲수의대동창회(회장 鄭英珍)=3명; 7백43만원 ▲약대동창회(회장 李金器)=5명; 5백만원 ▲음대동창회(회장 韓丹宇)=1명; 3백30만1천원 ▲치대동창회(회장 李龍才)=4명; 1천2백만원 ▲대협

원동장회(회장 金主楅)=2명:3백58만1천원 ▲경영대학원동정회(회장 金英大)=2명:3백만원
환경대학원동장회(회장 韓映鎭)=5명:3백만원 ▲국가정책과제동장회(회장 李奎俊)=5명:5백만원
▲도시환경과위생정책과정동장회(회장 吳元鎭)=3명:1백50만원
▲정보통신·방송정책과정동장회(회장 朴春相)=1명:3백80만원

55명에 복지장화금 수여

영컨데크느루지코리아(호장 金
住津)가 설립한 '亞南 특직장학
금'으로 이날 대리로 참석한 金務
雄陣무가 모교 재학생 金煥熙(인
류학과 4년), 金炯仁(컴퓨터공학
부 4년), 金相仁(원자학과 석사2
년), 任煥均(기계항공공학부 박사
2년)군, 金所炯(외교학과 3년),
金雅驤(디자인학부 4년)양 등 6
명에게 등록금 전액과 도서비 20
만원씩 총 1천5백46만4천원을
전달했다.

창자차과병원 金鑰藏(치의학
36-60 분회 부회장)이사장이 사
위 韓榮(치의학79-85 창자차과
병원장)등문과 공중명의로 설립
한 金鑰藏 韓榮 韓昌子학급을
로 이남 韓榮원장은 모교 치의학
과 李修珍(4년), 申正模(3년),
朴所深(2년), 朴潤基(1년)군 등
4명에게 총 1천2백만원을 전했

임광토건 林光洙(기계48-52
본회 회장)회장이 설립한 '林光
특지장학금'을 통해 학회장은 이
날 도쿄 자학생 朴庸圭(지리교육
과 2년)·南正鉉(동물자원과학과
2년)·韓金祥(응용화학부 3년)군
등 3명에게 1백50만원씩 총 4백
50만원을 수여했다.

신양문화재단 鄭植圭(화공48-52 관악회 이사)이사가장이 설립한 '鄭植圭 특지장학금'으로 鄭이사는 장은 이날 모교 재학생 崔兌圭(기

〈3면에 계속〉

경향 權石泉기자 ‘언론인 大賞’ 수상

관악회 회장단 유임

관악언론인회(회장 安秉勳)는 지난 2월 25일 서울 한국언론재단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전·현직 동문 언론인 2백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제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 시상식을 개최했다.

SBS 金亨瑛(외교76~80)는설위원인 俞靜雅(사회85~89)를 KBS나나온의 사회로 진행될 이날 행사에서 安秉勳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대 출신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나라의 밝은 미래와 경제성은 제대로 확립될 것”이라며 “우리 언론인들이 한 커다란 세상이나 먼저 나를 키워준 서울대가 세계 초일류 대학이 될 수 있도록 모교를 사랑하고, 거기서 배운 서울대 출신 인사들이 자신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회 林光洙회장은 축사를 통해 “희망이 있는 사회는 희망의 땅과 같이 살아 있는 사회”라고 말하고 “강철보다 강한 말과 글로써 이 나라와 이 사회에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언론인상을 구축해 달라”고 강조했다.

모교 鄭憲燾총장은 “관악의 미래가 소극의 미래이기에, 모교가 세계적 수준의 일류대학으로 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전파해 달라”고 말하고 “국내외의 부당한 평가나 편견에 맞서서, 모교가 꿈꾸는 위대한 비전에 효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경향신문 산업부 權石泉(사회85~89)처장이 제2회 ‘서울대 언론인 大賞’을 수상



했으며, 상패와 함께 문화에서 지원한 1천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서울대 언론인 大賞 심사위원회 劉載天위원장은 “예산 대외부 시리즈를 통해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이 남비되는 실태를 다량하고 심층적으로 분석, 고발함으로써 언론 보도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업적을 높이 평가했다”고 시상 이유를 밝혔다.

연화, “고려대”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본회 金在淳대회장은 전배제의를 통해 “관악언론인회가 더욱 건승해서 조국 완일의 길잡이가 되고, 사회의 옥탁구심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만찬이 끝난 뒤 金仁奎(정치69~73 KBS 이사)간사장의 사회로 진행된 연인 식에서 安秉勳



좌로부터 丁海島동문, 趙龍相경향신문 사장, 鄭憲燾·安秉勳·權石泉·林光洙·金在淳·趙善奎·朴煥太·韓和平·孫一振·金炯표등문

수상자인 權石泉동문은 “오늘이 상은 산배남들의 귀한 뜻을 담은 것이다. 믿고 성의 폭과 감미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상 소감 요지 참조)

이날 權石泉동문의 부친인 權權俊(중문56~61)동문 등 가족들이 축하 꽃다발을 전했으며, 모교 음대 朴齊善(성악86~90)교수가 ‘목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유임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安秉勳회장의 인사에 이어 관소리 공연기획자로 활동중인 林振澤(외교69~75 가곡출연 집행위원장)등인이 鄭石泉(국악82~86 국악악원 연·원)등인과 함께 흥겨운 우리 가락을 선보였다.

한편 이날 점점추첨을 통해 추

權石泉기자 수상 소감 (요지)

처음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14년간의 기자 생활이 스쳐갔습니다. 출신처가 비록 때때로 직업을 비약하며 인생을 몇 번씩 산 느낌입니다. 그 시간동안 제가 기자에 맞지 않는 건 아닌지 고민해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란 직업을 선택한 것을 후회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다양한 현장과 호흡하며 최일선에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 할 방향을 찾고 고민할 수 있다는 점, 우리 언론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언론의 위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지도 광범한 셀러브리티가 돼 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갈수록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도 뭔가 초월감을 갖고 일하라는 입장에서든 좀 억울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생긴 데에는 우리 언론 자신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을 파는 데만 급급하다보니, 그 근거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지 못했습니다. 옛날처럼 사사비비로 단숨에 가려지지 않는데도, 대강 자기 색깔에 따라 목욕탕과 함께 욕조 속의 이야기까지 버리는 잘못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산 대외부 시리즈를 하면서 심층적으로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아예언어 많이 남습니다.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언론의 가치관만 하나 하나에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예산을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들의 수습인 폭은 내부 논리를 뒤집는 것은 제가 가진 사상의 색깔이나 정외감, 의협심대로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기사 한 줄 한 줄을 놓고 공무원들과 씨름하고와 관련 법 조문과 자료를 뒤져야 했습니다. 취재결과를 되돌아가는데 며칠씩 매달려야 했습니다. 쉬운 직업은 아니었지만, 지난 6~7개월 동안 대학원 과정을 마친 것과 다를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획시리즈는 독자들에게 총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기자들의 전문성도 강화하고, 언론의 신뢰성도 높이는 일거양득이 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것이 많지 않은 저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신 것, 변화의 시대, 전환의 시대에 젊은 기자들의 탄발, 현장에 뛰어들어는 발에 희망을 걸겠다는 관악 선배님들의 귀한 뜻을 담은 것이라 믿습니다. 상의 폭과 감미를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傅松(철학73~77 YTN 미디어국장)·尹源宗(상학44~46 평화문화연구원장)·尹浩美(북문61~65 육미초이스 대표)·李淳紀(산대원68~69 대한언론인회 부회장)·曹炳皓(사회73~77 세계일보 논설위원)·趙道吉(사회60~65 크라운

컨트리클럽 고문)·蔡三錫(사회74~78 연남뉴스 지방국 부장)·韓聖康(정치57~61 前연남뉴스 연구기획실장)·韓宗顯(공문81~89 문화일보 정치부 차장)등문 등에 SK텔레콤에서 협찬한 휴대폰을 전달했다. (號)

(2면에서 계속)

특지장학금 수여

부평문과재단 李道卿(농학56~63)이사장이 아들 李煥振(기계84~89 드림텍(지점)동문과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道卿·李煥振 특지장학금’을 통해 李煥振이사이 모교 李道卿(기계공학공과학 4년)·李煥一(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4년)군에게 2백만원씩을 수여했다.

상명여사 李鍾顯(경영69~73 관악회 이사)사장이 설립한 ‘李鍾顯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金泰善부장이 대리로 친척한 가운데 모교 경영학과 鄭憲燾(2년)군과 朴振熙(3년)양에게 3백36만5천원, 도화장학기금상사 郭永順(토목56~60 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郭永順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郭회장은 모교 신인생 沈漢大(공학계열)·鄭現珠(비이오스전보정학계열)군에게 2백24만1천원을

지급했다. 지질학과동창회(회장 蔣敏權)가 설립한 ‘蔣敏權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지구환경공과학부 韓永奎·金相學(3년)군에게 2백만원, 수산중공업 朴柱輝(무역69~74)회장이 설립한 ‘朴柱輝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경제학부 鄭一玉(4년)군이 1백41만6천원을 받았다. 金鍾熙(생물교육51~55)前인제고 교장이 설립한 ‘金鍾熙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金동문은 모교 金泰浩(전기컴퓨터공학부 1년)군에게 1백만원, 오미이그릴 중사이사이여 鄭憲熙(화공72~76 본회 부회장)회장이 ‘鄭憲熙 특지장학금’으로 閔潤熙(응용화학부 4년)군에게 2백44만원을 전했다.

간호대동창회 韓敏淑(간호51~54)前여회장이 설립한 ‘韓敏淑 특지장학금’으로 모교 간호학과 金이름(2년)양이 2백만원, 통일기금상사 黃海龍(문과54~60)회장이 부인 李金玉여사와 공동명의로 설

립한 ‘李金玉·黃海龍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법학부 金鍾熙(4년)양이 1백75만5천원을 받았다.

본회 金道衡(법학43~47 변호사)고문과 그의 자녀(1녀3남)가 공동명의로 설립한 ‘敍村 5父子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金道衡이 모교 李保憲(기과과 2년)양에게 3백32만1천원, 인터비즈니스트 禹仁性(기계58~62 관악회 이사)회장이 설립한 ‘禹仁性 특지장학금’으로 이날 禹회장은 石炳熙(기계항공공학부 3년)군에게 2백만 원을 수여했다.

郭東憲(법학61~65)前 변호사가 설립한 ‘郭東憲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張光民(산전자연과학과 4년)군이 2백24만4천원, 李仁範(행정53~57)前회장이 부인 高延錫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李相範·高延錫 특지장학금’을 통해 姜廷華(법학부 4년)양이 1백75만5천원을 받았다. 화학과동창회가 설립한 ‘화학과동창회 특지장

학금’으로 모교 화학부 安熙善(4년)양이 2백37만원, 재미동창회 吳仁錫(행정62출 본회 부회장)고문이 설립한 ‘吳仁錫 특지장학금’으로 金이름(공과학과 4년)양이 1백75만5천원을 받았다.

유니온테크 安熙善(행정58~63 관악회 이사)회장이 부인 孫潤淑여사와 공동명의로 설립한 ‘安熙善·孫潤淑 특지장학금’을 통해 모교 尹珊珠(법학부 4년)양이 1백75만5천원, 한국우드워드 李海進(행정51~55 본회 부회장)회장이 설립한 ‘李海進 특지장학금’을 통해 차후재(법학부 2년)군이 총 1백92만원을 받았다.

한국청소년연구원 조 朴明潤(보대원74~76 관악회 이사)이사장이 설립한 ‘朴明潤 특지장학금’은 4월 중 모교 연전생과 보건대학원에서 우수 논문을 발표한 석·박사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994년부터 KB카드(韓國KB카드)사와 제휴, ‘서울대

충동창회 KB카드’를 통해 매년 동문들이 사용한 카드결제금액 중 적립된 일정금액을 기부받고 있는 본회는 이날 KB카드사로부터 2004년 기부금 3천9백68만3천1백96원을 전달받았다.

3명에 기금장학금 전달

李元珪(농생물58~63 前산림청 임업연구원)동문이 설립한 ‘李元珪 기금장학금’으로 李동문은 모교 재학생 柳榮俊(수학학과 박사 2년)군에게 4백37만3천원을, 본회 李元奎(행정68~73)前이사부총장이 설립한 ‘李世賢 기금장학금’을 통해 李명애사부총장은 모교 신입생 曹煥模(사회과학계열)군에게 1백50만원을 수여했으며, 치과대학 불교학생회 출신 동문들로부터 구성된 謝樹金(회장 李在仁)가 설립한 ‘謝樹金 기금장학금’을 통해 치의학과 李東基(2년)군이 1백만 원을 받았다.

느리나무장

5·16 다투어진 1962년 봄으로 기억된다. 삼천의 군정 기였던 당시 동승들 틈에 교정에서 군정 연장을 반대하는 데모가 일어났다. 당연히 군 병력과 경찰이 출동해 교문을 봉쇄했고, 교수님들은 학생들을 제지하러 다짐을 하셨다. 별 두 개가 붙은 모자를 쓴 최귀원이 검은 안경을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 마침내 최총장이 단상에 나타나 학생들을 타이르기 시작했다. 비로 그 단상 앞에서 검은 안경의 최귀원이 두 손을 접어 주머니에 찌른 채 서 있었다. 그러자 학생들이 소리쳤다. "아, 손 빼. 누구 앞에서 감히 손을 붙여 서 있어. 손 뺏 빼!" 학생들의 고함아 높아지자 장영은 돌고 돌아 주머니에서 손을 빼고 뒤로 숨어서 물러갔다.

40년 더 된 옛날 얘기를 꺼낸 것은 대학 총장 얘기를 좀 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때나 지금이나 국립대 총장은 장엄이긴 하지만 총장의 권위와 권력에 대한 사회의 존경·배려 같은 것은 세월이 갈수록 떨어져 온 것 같다.

40여 년 전 최귀원은 권력자였지만 당시 학생들에게 그런 권력이나 제급과는 상관없이 총장에게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야 한다는 생각들이 있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사회 일반의 인식도 그랬던 것 같다. 실제 정치권이나 권력자에서 오 학자나 학문·학교에 대해서는 일정한 존경과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그런 의식이나 인식은 거의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과거엔 서울대를 비롯한 명문 사립대 총장이려면 정부에

나가기라도 대개 총리로 영입되었다. 어떤 총장들은 권력의 집요한 간섭을 끝내 물러치고 학문 외길을 뜻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모교의 총장총장처럼 많은 유혹을 뿌리치고 자기 길을 굳건하게 가는 분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총장 출신이 전직 부원장으로, 장관으로 가는 것을 자원으로 아는 경향이 커져 보인다.

누가 봐도 그것이 정략적으로 유용한 인사인 게 뻔한 데도 자기가 몸담았던 대학이나 제자·동문의 체면까지 구기면서 감투를 탐하고 정파에 가담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명문 사립대 총장이 현직에서 정부의 장관도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간 사대도 있다. 그 대학의 교수와 학생들이 들끓은 것은 아직도 총장직에 대한 기대와 존경이 남아 있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모교의 한 전임 총장도 교육부총리로 갔다가 말년만 당하고 물러났는데, 문제는 그 말년이 그 자신만에 그치지 않고 모교와 동문들에게까지 누가 된다는 점이다.

총리로 가면 관찰하고 그 밑으로 가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다. 대학과 총정에 걸린 기대와 역할에 맞게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권위와 자존심은 스스로 세우야 한다.

총장님을 힘내세요

宋 鍾 赫

언론인

본보는남원원



동문칼럼

만사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

나는 요즈음 주말마다 재미있고 즐겁다. 자정 무렵부터 일요일 거의 새벽 두시 가깝게 '겨울연가'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빨간이' 아니다. 그 앞 시간 때에는 고현정 출연의 '봄날'이라는 드라마도 있고, 최정호의 '토지'도 있다. TV 앞에 그것도 드라마 앞이 몇 시간씩이나 붙어 앉아 기뻐하고 슬퍼하는 모습이 별로 낯설지 않고 무슨 중독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별 도리 없이 재미있다. 우리 연가자들의 놀랄 만한 연가력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원래 방송 덩치에는 내가 정원으로 재입(99.6~2003.2)하면 돼졌는지 겨울연가를 하는지 어쨌지도 몰랐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라 되어 의원외교에 나서면서 '완득 소년'을 모으고서는 한국인이라고 하기가 좀 뭉개지는 느낌마저 들게 되었다. 지난날에는 한일위원연맹 모임과 유엔 민간인 신변보호위원회(한일위원연맹)를 만나서. 여기서도 겨울연가는 빠지지 않았다. 가와구치 장관은 자신은 물론 고이즈미 총리도 원데 소년처럼 출장가나와 NHK에서 우리말 사운드와 일본어 자막방송을 하는 것을 보면서는 한국말과 일본말 사이에 어떤 차이가 발음이 비슷한 줄을 처음 알았노라 했다.

일본측이 듣는 '은사비' 열풍의 연유는 대강 이러했다. 첫째, 한국의 정보통신기술 등의 눈부신 발전은 세계 속의 인류 한국의 위상과 함께 문명에 대한 우월성을 부각시키는 토양이 되었다. 둘째, 둘째, 일본은 한국 측구선수들과 밀접에서 부딪힌 거기서 엄청난 '기'를 느낄 정도로 한국의 '기'는 대단

하다. 셋째, 좀 말하기가 뭉개지, 장기간 경제침체에 지달린 탓인지 일본인들의 정서가 무언가 조조하고 재미가 없다는 해석도 끼어 있었다. 넷째, 남 녀간 로맨스에서 서양인이 아니라 동양 사이면서도 솔직한 사랑의 표현이 일본의 중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이다.

의외외교 현장에서 실감한 것은 은사비 대표되는 한류 열풍이 아시아를 거의 휩쓸고다니고 있다는 사실이다.



金 明 子

(회화62-66)

국회의원

본회 부회장

金元(국회의원의 동남아 5개국 순방을 수행한 길에서) 한결같이 한류가 화제였으니 고위급 의정활동들 보드랍게 풀이주는 화두였던 것이다. 우리가 학생시절 교과서에서도 읽었던 한국인의 '은근과 끈기'는 세대교체를 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로 진화되어, 월드컵의 붉은 악마, '태극기 휘날리며' 등을 낳고, 남의 나라 얘기인줄만 알았던 국제영화제 시상식대에 오르는 패거리를 이룩하고 있는 것이다. 얼마 전 총장을

다녀오면서, 이에 대한 보고를 위해 찾아본 金大中 前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정보통신기술 진흥을 위해 전력투구한 것이 열매를 맺고 있고, 문화산업에 대한 규제도 과감히 푸는 결단을 내린 것이 오늘의 한류로 이어지고 있어 보람을 느낀다."

누가 우리를 보고 창의력이 없다고 했다. 정보통신기술과 한류, 그런 것들이 창의력 없이 나올 수 있었을까. 자식기반정보사회에서 창의력은 모든 분야에서 발전의 최고 동력이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 그러나 그 희망의 열매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이 선진사회의 결점이 너무 치열하고 후발국들의 추격이 녹록치 않다. 그 창의력을 어떻게 한껏 키울 수 있겠는가 가 연설이다. 그렇게 본다면 선진한국의 진입은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견어내는 데서 으뜸가는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문화산업이 '한류'라는 바람을 일으키며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데에는 우리의 고위성과 글로벌 감각의 융합이 있어 가능했다는 생각도 든다.

정부에서 일한 경력이 비추어, 선진국 문턱을 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은 물론 문화나 경제도 모두 발전과 함께 자율경쟁에 맡기고 정부는 민간부문의 역할을 지원하는 합리적 조정자의 역할로 선화하는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규제의 벽을 허무는 일은 이제 국경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한류가 지속되기를 기대하는 만큼 남의 것을 받아들이는 저항적 자세도 절실하다. 세계가 우리 삶의 방식과 時空 개념의 절대성마저 변화시키고 있는 오늘날, 수동적 '보통'의 논리 속에 안주하는 것은 금물이다.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는 선진 '한류' 생산과 세일즈에 나서야 한다. 좁게는 스포츠 패러나 넓게는 FTA에 대해서도 더 이상 머뭇거리기 여유가 없어 보인다. 만사는 '때'가 가장 중요하다. '때'가 부르지기를 기다리고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나 아니겠는가.

陽泉장학회 金潤澤이사장

특기장학회 5천만원 쾌척

지난 2월 24일 陽泉장학회 金潤澤(경대원68-70)이사장(사진 左)이 본회에 특기장학회 기금으로 5천만원을 쾌척했다.



대공출산 회장, 민주평통 자문위원, 중국 연변대 객좌교수를 겸하고 있는 김이사장은 지난 1985년 陽泉장학회를 설립해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고교생,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해왔다. 올해 20주년을 맞이함에 따라 이와는 별도로 재단법인 관악회 관리 하에 陽泉장학회 金潤澤특기장학회'를 설립하기로 결심, 오는 2학기부터 모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郭東憲원호사

장학회 1천만원 추가 출연



지난 2월 3일 郭東憲(법학61-65)원호사(사진)가 본회에 특기장학회 1천만원을 추가로 출연했다.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특기장학회 1구(5천만원)를 출연한 郭東憲이 이번 추가 출연으로 총 6천만원의 장학기금을 운영하게 됐다. '郭東憲특기장학회'는 지난 2003년 1학기부터 모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한림자연학과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오고 있다.

동문 인적사항 학파, 입학-졸업년도 표시

그동안 졸업년도와 출신 단과대학만 표시해온 동문의 인적사항을 '출신 학과와 입학년도-졸업년도'로 표기합니다. 입학년도 또는 졸업년도만 확인된 경우에는 그 연도표시 후 '입 또는 졸'을 표시해 구별합니다.

한편 대학원 졸업자와 단기과정 수료자는 대학원 또는 과정을 표기하고 입학(졸업)년도 또는 기수를 표기해줍니다.

예: 洪吉奎(수학교육65-69) / 洪吉奎(기계66입) / 洪吉奎(국문70졸) / 洪吉奎(생대원67졸) / 洪吉奎(AMP 1471)

산업 동향·지방 인맥

관악무역인회 尹炳和회장
(우방TMC 대표)

관악무역인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정기 총회 및 송년모임을 개최, 신임 회장에 우방TMC 尹炳和(성우58·62)대표를 선출했다. 이에 尹회장에겐 현재 활동 및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1970년 수입의 건전한 발전과 거래질서를 유지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한국수입업협회의 7천여 회원사 중 최고 출신 CEO 6백여 명이 모여 친목과 발전을 위해 1996년 발족해 활동해왔으며 현재 제가 5대 회장을 맡고 계세요."

—경제인들이 모인 단체인 만큼 활동이 남다른 텐데.

"최근 들어 동문간에 우리 동창회의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속속모여 있는 한국수입업협회 기능이 약화되면서 더 강하게 동문들을 결속시켜 줄



려워지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는 '우방TMC'에 대해.

"1973년에 우방무역회 설립했는데 당시에는 1인 기업이었죠.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해야만 했던 시절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많은 성장을 통해 다종류 표창, 산업자원부 장관 표창, 한국 섬유공업상 등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IMF를 겪으면서 회사의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현재는 20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마산지부동창회 池明澈회장
(창원지방법원소사회 변호사)

합이 중요하리라 보는데,

"인접 창원공업단지 내 대기업의 입원들은 거의 대부분 모교 공대 출신으로 산업 발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동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노카이TMC李宰旭(전자61·65)명예회장은 이 지역에서 장학 사업 및 인형이 수출사업 등을 펼치고 있어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李회장은 비록을 일체 안 쓰는 순수 자연 친화 농업의 농부들 기업을 개발, 현재 실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연구 개발이 성공할 경우 쌀 생산의 인력과 비용의 획기적인 절감 효과가 있을 전망입니다."

—앞으로 동창회 활성화에 위한 계획은.

"우리 동창회는 우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더욱 유대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모교 지원을 위해 이 지역 모교 신입생들에게 장학 혜택을 늘려 나가는 사업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사업확장·정보 교환의 장 만들터"

움을 줄 기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움에 처한 동문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주는 조인을 해주거나 정보 등을 교환하는 모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섬유공학과 동창회장도 지내셨는데.

"과거 수출업의 첨병 역할을 하던 섬유 산업이 이제는 그 역할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섬유공학과 동창회도 상당히 위축된 경향이 있죠. 제가 2년 정도 섬유공학과 동창회장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려 노력해 보았으나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모교의 섬유공과 교육은 공장에서 직접 관리하고 알하는 교육을 받았으나 현재는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강두와 양적교육으로 전환돼 현업에 종사하는 동문을 찾기가 어

작년에 '우방TMC'로 상호를 변경, 무역 외에도 기업 M&A 등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우선 회원간의 친목과 발전을 위해 공조 행사, 장학사업의 증대 및 동문 가족 등산모임, 바둑모임, 문화행사 단체관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기존 운동모임이 더욱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동창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우리 주위에 건실하게 살아가는 동문들,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동창회보에서 많이 발굴해 친근함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창회를 위해 기여한 사람들을 좀더 부각시켜주어 기부 문화가 더 확대될 바랍니다."

"이사회 활성화·장학사업 확대 목표"

다는 이사회를 더욱 활성화시켜 동문간의 친목노모와 결속을 다지는데 전력하고자 합니다."

—동창회 활동에 문제점은 없었는지.

"우리 동창회는 매달 이사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이사회간의 상호친목을 도모하는데 주력해 왔으며 이 모임을 통해 각자의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일이 많습니다. 문제점이 있었다면 앞서 지적한 바와 같으며, 그 개선 방안으로는 일단 회원 각자가 지역사회에서 개인적인 역할을 나타내고 모범적인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차츰 지역사회의 인식 전환을 가져오게 되고 그 결과 서울대 동창회의 존재와 그에 부응하는 사회적 활동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 도시인 이 지역에서 동문들의 역

—동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많은 동문들은 특히 정·관계에 진출해 있기에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과 말 또한 신중하고 조심해 국민들에게 지탄받지 않도록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불명성스러운 동문으로 인해 전체 우수한 졸업생들까지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겠죠. 끝으로 자제가 공인하는 이 나라 최고의 자랑인으로서, 이 사회의 끊임없는 오퍼니언 리더로서의 역사적 자부심과 긍지를 부디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싶습니다."

池회장은 간사민·김사민, 서울·부산·대구 등 각 지방감찰청 부장직임을 역임했으며, 경남대 겸임 교수, 마산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장을 등을 맡고 있다. (후)

AFB 고우회 金鍾福회장
(SD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 학장)

최근 패션산업최고경영자과정 총교우회 신임 회장에 선출된 金鍾福(AFB 17기 SD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 학장(동문은 "작년 한해 섬유업계도 다투고 마냥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다"며 "이별 때일수록 동문간의 모임을 활성화해 최신 정보를 교환하고 불황을 극복한 동문들의 사례를 홍보해 결속력을 다져나갔다"고 밝혔다.

—AFB과정에 대한 소개.

"지난 2002년 5월 본 과정이 개설되면서 1기가 시작된 이후 현재 4기까지 약 1백35명의 동문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각 기별 모임, 골프·산악회 등의 각종 모임 외에도 한국능률협회에서 주관하는 비즈니스스쿨과 각종 세미나가 활성화돼 있어 많은 동문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교우회란 명칭은 고려대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교우회란 명칭은 기별 원우회와 조직구성의 명칭을 차별하기 위해 처음부터 사용했을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모든 동문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명칭으로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본 과정 교우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타 과정 동창회의 경우 여러 분야의 동문들이 모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의 경우 대부분이 패션업계의 전문 경영인이라는 점입니다. 사업적으로 만나는 일이 잦아 상호 협



"동문 사업 활성화에 모든 힘 모아"

력할 기회가 많고 같은 분야의 동문들이라 의견일치가 순조로운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의 역점 사업은.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 올해는 동문들의 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패션산업과 관련된 국내와 최신정보나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모범 동문단체를 방문해 벤치마킹을 한다든가, 성공사례를 알려주어 일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총교우회 활동보다는 하부조직인 각 기별 활동을 장려할 생각입니다."

—총동창회에 바라는 점은.

"서울대의 명예와 권위를 기반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가길 바라며 장학 사업을 비롯해 사회에 귀감이 될 수 있는 많은 활동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金회장은 대신고와 영국 RHDC 산업대학을 졸업하고 35년간 SD패션디자인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해오고 있다. 도서출판 '지대'와 'Fashion Marketing Research' 대표를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대 총동창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Fashion Marketing, Fashion Business 등이 있으며 대통령 포상,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다. (후)

제7회 관악대상 운영위원회

3개 부문 후보 22명 1차 심사

관악대상운영위원회(위원장 孫一楓)는 지난 2월 28일 서울 한국인문재단 19층 목련실에서 제7회 관악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는 朴光洙(화장, 孫一楓)운영위원장, 白文基(韓斗鎭·金哲洙·辛東一·李世熙·金讚澈·孫承植·李炯均·金一燾·許廬

운영위원이 참석했다. 尹勳煥·李吉女·卞柱仙·金仁圭·李熙和·吳世煥운영위원은 위원장으로 대신했다.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지난해 추천된 8명(운영위원 제7조 3항에 의거 전년도 후보자 중 수상치 못한 후보자는 자동 추천)을 포함해 총 22명의 동문이



관악대상 후보에 올랐다.

단, 개정된 운영규정(제7조 4항 후보자 추천을 거치지 않더라

의 찬성에 의해 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에 따라 후보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관악대상운영위는 지난해

까지 참여·협력·영광 세 부문으로 나눠 추천을 받았으나 올해부터는 추천부문에 대한 구분을 없애고 심사하기로 했다.

孫一楓위원장은 “몇 년간 추천을 받아온 결과 참여, 협력, 영광의 각 부문에 대한 명확한 개념 없이 추천해 주는 분이 많고 심지어 참여·협력 부문에는 대상이 없고 영광 부문에만 몰리는 실정이라 추천 구분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3월 8일 최종심사에서 관악대상 수상자를 결정해 오는 18일 정기총회에서 시상한다.

지현센터 16층 캐슬스카이 ▶ 주최: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수원지부



수원지부

동창회 활성화 논의

수원지부동창회(회장 俞煥禧)는 지난 1월 28일 수원시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16층 캐슬스카이에서 동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회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모교가 갈수록 외부에서 도전 받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이 모교 발전을 위한 동문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

한 때”라며 “서울대인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동문 한 명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 소개를 하고 덕담을 나누면서 동창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특수원병원 趙煥賢(외51-57)이사장, 경기신문 鄭建男(농60-64)발행인,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韓範吉(법학64-68)사장, 모교 수의대 李文漢(수의66-73)교수 등이다.

언론정보학과 대학원

3월 중순 정기총회

언론정보학과 대학원동창회(회장 金夢鎭)는 지난 1월 27일 서울 한국인문재단 19층 목련실에서 趙容直(72총)·韓範范(72총)교수, 柳維秀(73총)·李民熙(75총)등문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장단 신년

모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차기 회장을 물색하는 한편 오는 3월 중순쯤 정기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부산지부 공과대학

‘가족의 날’ 행사 갖기로

부산지부 공과대학동창회(회장 許 洪)는 3월 26일 부산 범일동 하모니 컨벤션&웨딩타운에서 동문 가족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의: 017-565-8202)

농경제학과

새 회장에 李元泰등문

농경제학과동창회(회장 朴正根)는 지난 2월 4일 서울 마포 동창회관 5층 관악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李元泰(64-68 급호고교 사장)등문을 선임했다.

신임李회장은 “학창시절 공부도 잘 못하고 지금까지 전공과는 무관한 길을 걸어왔는데 동기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모교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고 했어.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은 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李회장은 72년 급호서유학회 입사 후 92년 급호를 중국본부장·전신 급호화되어 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02년 급호산업 고교 사립부 대표이사 사장에 올랐다.

농경제학과동창회는 매년 봄, 가을에 정기총회와 즐거움대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평균 70~80명의 동문이 참석하고 있다. 이날 모임에도 재학생을 비롯해 朴樹煥(48-52)·沈水根(49-53)·金成勳(58-63)등문 7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南)

국가정책과정

金元基국회의장 강연

국가정책과정동창회(회장 李東俊)는 지난 2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시모이어룸에서 金元基(신대원68-70)국회의장을 초청해 초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金의장은 “국회의 운영방향”이란 주제로 특강강연을 펼쳐 동문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이날 모임에는 李柱範(10기)·李英淑(17기)·安錫珠(18기)·崔連權(18기)·崔載善(18기)등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 비로 잡습니다 -

지난 323호(2월 15일자) 1면 南田 元仲(南田)의 신년 회초 영성 가운데 “學은 如露天而無所執고”를 “人之學은 如露天而無所執고”로 바로 잡습니다.

알림

서울대학교총동창회 정기총회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제4장 제11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사항과 조장)에 의해 정기총회를 개최하오니 동문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 시: 2005년 3월 18일(금) 오후 6시 30분
- ◆장 소: 롯데호텔 2층 크리스탈볼룸
- ◆내 용: ① 제7회 ‘서울대총동창회 報誌大賞’ 시상
② 2004년도 결산 및 2005년 사업계획 보고
③ 기타 안건 심의
- ◆회 비: 없음. 동문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동창회 146차-관악회 92차 상임이사회는 정기총회 전 오후 5시부터 에메랄드룸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서울대학교총동창회 회장 林 光 洙

치과대학

白純之회장 선출

치과대학동창회(회장 梁錫植)는 지난 2월 18일 모교 연건캠퍼스 치과병원 8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白純之(63-69 백순지치과의원장)등문(사인)을 선출했다.

신임 白회장은 “치대 병원이 독립 법인화했고 대학도 대학원 중심으로 바뀌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 동창회도 변화해야 하는 시점에 왔다”며 “올 한 해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말했다.

白회장은 서울시 치과대학사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중앙고 총동창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사에는 崔光岳(56-62)·南東燾(59-65)등문이 유입했으며 白承植(73총)등문이 새로 선임됐다. 또 자랑스러운 치과대학 동문으로 대한구보보건의료회 金煥燾(47총)명예회장을 선정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했다.

한편 모교 치대 학장을 역임한 金重守(66-72)등문에게 공로패,



洪禮均(65-71)등문과 각 기별, 지부 회장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유례 치과대학동창회는 해마다 정기총회를 추진하고 동창회 홈페이지를 일신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정책과정

비치대회장 결임

보건의료정책 최고관리자과정동창회(회장 金方喆)는 지난 2월 21일 모교 연건캠퍼스 보건대학원 4층 강당에서 1백2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白純之(47)백순지치의원장·치대동창회장)등문을 선출했다.

이날 강사에 張鐵鎭(1기)·洪光植(3기)·李公愷(5기)등문을 선임하고, 지난 95년 설립한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소의 동창회 산하 영입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동문 학자 서상 전시회



‘구통기둥’ 점토, 30×22×37cm, 2003.

李慶姬 作

〈작가박력〉

- ▲89년 동서현대대예전
- ▲89년~현재 부산도사미술가회전
- ▲90~93년 예술의 전당 개관기념 초대전
- ▲98년 한국현대미술 100인 초대전
- ▲99년 공예의 상상력전
- ▲02년 한일 현대예전
- ▲현재 신라대 공예학부 교수, 토건 회원
- ▲67년 모교 미술교과목과 인형
- ▲71년 모교 미술교과목과 졸업
- ▲73년 모교 대학원 미술교과목 졸업
- ▲83년~현재 한국현대미술가회전
- ▲개진 10여 회 개최
- ▲87~89년 현대미술초대전



ROTC동문회

회장 유임·공임 열어

ROTC동문회(회장 梁在鉉)는 지난 2월 17일 서울 역삼동 리미타스 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로움에서 李敏在(사회60·64·2기)국회의원, 洪宗浩(사회62·66·4기)전임 회장, 모교 李鎭仁(응용화학66·70·87기)부총장, 본회 許 璜(정치64·68)사무총장을 비롯해 1백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겸한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梁在鉉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금 한국 사회의 혼란은 모든 분야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동문들이 제 몫을 다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라고 말하고 동문들의 자기 반성을 당부했다.

이날 ROTC동문회는 본회 林光株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梁在鉉(간축65 69·77)회장을 재선 임했다.

또 수석부회장에 金鍾燮(사회사언66·70·87기)·崔宇永(토목79·83·21기)동문, 사무총장에 金鍾賢(응용수학68·72·10기)동문을 선임했다.

각 기별 소개가 이어진 후 3부 순서에서 申鉉宗동문이 '웰빙시대의 삶'이란 주제로 특강을 펼쳤으며 金正勳동문이 색소폰 연주를 선보였다.

의과대학

합춘기성에 姜秉勳동문

의과대학동창회(회장 李吉女)가 지난 1월 30일 모교 연강캠퍼스 합춘회관 강전에서 개최한 제22회 전산비독대회 및 2005년 '합춘가성' 선발전에서 姜秉勳(92·98)동문이 자랑스런 합춘기성의 따들을 획득했다.

高在熙(7단)사범 주관으로 치러진 이날 대회는 총 35명이 참가해 A조(1~2급), B조(3~4급), C조(5급 이상)로 나뉘어 진행됐다. 4인 1조 풀리그 방식으로 예선을 거쳐 다승자 4명이 토너먼트로 우승자를 가린 A조에서는 姜秉勳동문이 朴廷龍(74·81)동문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된 A·B조에서는 朴廷龍(65·71)·柳錫熙(66·72)동문 각각 1위에 올랐다.

합춘기성에 선발된 姜秉勳동문에게는 한국기원의 아바 5단증, B조 우승자인 朴廷龍동문에게는 아바



姜秉勳·河權益동문

3단증이 수여됐다.

이날 대회에는 沈英輔(55·61)·河權益(57·63)·尹正哲(59·65)·李容國(59·65)·李炳勳(60·66)·李昇哲(61·68)부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李吉女회장이 참석자 전원에게 비누세트를 선물했다.

해양정책과정

홈페이지 활용 분석

해양정책최고과정동창회(회장 南正明)가 최근 홈페이지를 분석한 결과 총 회원 1백29명 가운데 74명이 가입해 홈페이지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snu100.nasoc.net)활성과 증진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번 분석에서 5기생의 경우 한 명을 제외한 모든 회원이 가입해 가장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1기생들은 총 31명 가운데 16명만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동문은 24명으로 월 평균 4개의 글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동창소식지 조회수는 최대 82명이며 평균적으로 39명이 열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鄭容鉉(1기)총무는 "최소한 주3회 이상 방문해 줄 것과 메시지 수신거부로 설정한 동문들은 해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치·외교학과

차기 회장에 金學俊동문



정치·외교학과동창회(회장 金駒)는 지난 2월 25일 서울 코리어나 호텔 스테이트룸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고 차기 회장에 동이일 보金學俊(정치61·65)사장(사진)을 선임했다.

이에 따라 金學俊동문은 金駒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2월부터 정치·외교학과동창회를 이끌게 됐다. 이날 모임에는 金錫泰(정치44·48)·具範濬(정치52·56)·尹銘重(정치53·57)·桂昌鎭(정치54입)·朴權圭(정치55·61)·鄭永義(정치55·59)·李東鎭(정치56·62)·蔣正煥(정치56·63)·李澤徽(정치57·61)·金澤得(정치58·62)·金鑑珠(정치58·64)동문 등 30명이 참석했다. (南)

약학대학

장학금 2배 증액

약학대학동창회(회장 李金器·사진)는 지난 2월 24일 서울 타워호텔 본관1층 레스토랑에서 1백1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 동창회를 위해 수고한 지부 회장과 동문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어 재학생 5명에게 장학금 5백만원씩을 전달했다. 이는 작년어 비해 2백5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또 뉴욕지부에서 신



동형(재학 4년)군에게 2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올해 약학대학동창회는 천목사업으로 테니스대회(4월), 바둑대회(6월), 동창의 날 축제(10월)를 개최할 예정이며 연 4회에 걸쳐 회보를 발행할 계획이다.

마평

李元靚



“거짓 없이 원칙과 소신 지켜 쌓은 신뢰가 가장 중요”

동문을 찾아서 李海瓚 국무총리

李海瓚(사회72-85) 국무총리에겐 정책 현안들을 김숙이 제고, 가치를 채내는 특유의 종합분석 능력이 탁월하다는 찬사와 이치에 맞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반박을 가해 긴장관계를 형성한다는 평가가 함께 따라다닌다.

지난해 6월말 제36대 국무총리에 취임해 뛰어난 국정 장악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李총리를 만나 자신이 육을 먹더라도 결론을 내리는 과유가 어디서 나오는 지 알아본다.

— 먼저 총리 취임 후 8개월을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총리직은 할수록 어려운 자리 같아요. 처음 취임하면서 ‘임하는 총리’가 되고자 다짐한 대로 앞으로 지난 기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총리의 역할을 다하는 데 헌신의 힘을 다할 생각이에요.

— 개인적인 내용부터 여쭙보겠습니다.

공대에 입학했다가 사회학과로 옮겼지요.

1971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대 섬유공학부에 들어갔는데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적성에 안 맞더라고요. 전과를 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절차가 복잡하기에 다시 시험을 쳤어요. 경제학과 사회학과 중 어디로 갈까 하다가 사회학과로 선택했지요.

— 학교를 오래 다녔는데.

작을 둔 것만 오래 됐지, 실제로 오래 다닌 건 아니죠. 세 번 재적됐었어요. 73년에 잠시 재적했는데 그전 학교에서 업무처리를 안해 제적으로 안 나오요. 74년에 구속으로 재적해 80년 3월에 복학했다가 7월에 다시 재적됐고 84년에 복학, 85년 여름에 졸업했어요.

— 인생의 청춘을 힘겹게 보내셨는데요. 특과 실이 있다면.

스무 살 때 입학했는데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하게 된 게 88년부터니까 16년 동안 수배당하거나 감옥살이하거나 감시당하면서 살았어요. 할의했지만 역사에 기여했고, 민주화라는 우리 세대의, 거대한 형성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많았어요. 그 동안 사람도 많이 만났고, 인간관계도 형성됐고요. 저 자신도 성장했고요. 그 시절에 읽은 책이 인생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거니까요. 땅아이를 보면 세계 전지를 돌아다니고, 지금도 영국에 가 있고, 우리는 그때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한 번 타 봤는데, 지금의 젊은 세대는 참 좋은 세대다 싶어요. 우리가 치렀던 고통과 희생을 그들에게 필요 없는 것 아니니까. 그 모든 게 어찌된 우리 세대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이뤄진 것이지요.

— 떠났던 대학을 졸업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하시는지요.

사학을 전공했어요. 처음에 중국의 음식 문화를 공부한다고 하더니 요즘엔 중국을 식 만드는 것 자체를 배웠다고 하죠. 그러

대답 : 본보 차림장은실위원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라고 했어요. 뭐든 적성에 맞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먼저 요리를 배우고 음식문화사는 천천히 해도 될 테고요.

— 경력에 다들하시죠. 서울시 정무부시장, 교육부 장관, 5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셨고요. 국정 운영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될 듯합니다만?

국회의원을 오래 한 게 보탬이 되지요. 17년째인데 그동안 정책위 의장만 세 번이나 했고, 서울시 부시장으로 도시 행정을 한 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교육부 장관도 좋은 경험이었어요. 민주화 운동을 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게 바탕이 되고 거기서 가치관이 형성됐으니까요.

— 총리께서 서점을 운영하신 것만 아는 사람이 많던데요.

서점은 진짜 생계수단이었고, 출판이 본업이었지요. 출판하면서 직접 번역도 많이 했고요. 젊어서 많이 읽고 쓴 데다 사업도 해본 게 결과적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요. 당시엔 출판도 험악했었어요.

서점·출판사 운영경험이 도움돼 짧았던 교육부 장관 못내 아쉬워

‘한바탕’이란 이름으로 운영했는데 분별란 씨의 시집을 썼다고 허가를 취소하는 바람에 ‘둘째씨’로 이름을 바꾸고 발행인을 구하느라 고생했지요.

— 살아오면서 가장 아쉬웠던 대목들 중 어떤 것.

아쉬움이 다 있지만 교육부 장관을 조금 더 했었다면 심긴 해요. 1년3개월 정도 했는데 1년쯤이나 6-7개월만 더 했어도 교육계계를 비로 잡는데 도움이 됐을 텐데, 그만둔 다음 장관이 계속 바뀌니까 계획했던 것들도 다 흩어져 버렸어요.

— 공교육 문제는 여전히 큰 문제로 남아 있는데요. 공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나라의 교원이 35만명쯤 되는 데 자질이 다른 나라보다 낮지는 않습디다. 문제는 풍토지요. 잘 가르치려면 열심히 연구하고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과내용이 자주 바뀌는 만큼 연수와 재교육이 필요하지요. 교사는 남을 가르치는 직업이기 때문에 평생동안 계속 배워야 해요. 평생학습 시스템이 필요한 셈이지요. 그러지만 재원도 문제지긴 그보다 교육계의 풍토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공부하는 교사들이 인정받는 풍토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럼요. 다른 나라에선 방학동안 급여를 안줘요. 재교육은 ‘본인이 알아서 하라’는 거죠. 우리의 경우 방학 동안에도 월급을 주는 건 그동안 연수하고 공부하려는 애기를 위한 거죠. 지금 국내에서 평생수익으로 치면

— 그렇지한 우리 나라에선 보통 따지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손해 보는 거구요. 그런데도 계속 같은 스타일을 유지하실 건가요.

그동안 한번도 바뀌본 적이 없어요. 이직직원도 저는 따지는 사람을 좋아 해요. 알아무리고 넘어가면 안되거든요. 사람은 사실대로 말해야만 편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사실을 잘못 얘기하거나 어떤 것을 제대로 밝혀 놓지 않으면 판단을 잘못할 수 있잖아요. 판단이란 것은 철저하게 사실에 기초해야 해요. 그래서 직원들에게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도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해요. 사실이 다르면 판단한 뒤 수정하기가 어렵

려워요. 그래서 공적인 일일 경우 철저하게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조정해요. 금다총재와도 그래서 많이 싸웠어요. 그 분과는 아무도 안 싸워요. 안 싸운다기보다 주장을 안해요. 조금 얘기하다 틀러서지요. 그렇게 저는 얘기를 했죠. 그렇게 하면 총재가 근처에 붙어 있기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끝까지 결에 있었어요.

— 그렇게 끝까지 옆에 계실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나요?

거짓말을 안하는 거지요. 스스로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원칙과 소신’을 지키려 노력하고요. 그러면 신뢰가 생겨요. 총재에게도 처음엔 상가서 험담하지만 나중에 살아있는 적이 별로 없어요. 오랫동안 어려운 결단한 해운 만큼 사실이 참뚱뚱하면 공복되는 걸 아시니까요. 타고난 보스였지요. 그 분 밑에서 정책위 의장을 세 번이나 했어요. 그만큼 서로서로 신뢰가 두터웠다고 봐요.

총대통령과도 마찬가지로요. 안 지 20년쯤 됐는데, 한번도 거짓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아마도 안희정도 거짓은 저에서 안된다고 얘기하다 다른 적은 있어도 입장 곤란해서 할 말 안하고 자만 적은 거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요즘엔 견해가 달라도 이해하고요. 대통령과 총리의 역할 분담에도 그런 신뢰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오전에도 안희정원 회의를 했는데 회담장에 들어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李총리가 하자는 대로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시더군요. 제가 무슨 일을 하지도 하든지 저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의 합리성을 추구하려는 것이라는 신뢰가 깔려 있거든요. 제게 권한을 줬도 그럴 하루로 쓰지 않는다는 걸 아시는 거지요.

— 보통은 속직성이나 책임감으로 인연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90%예요. 작은 인간관계보다 큰 관계에서 더



□ 중요하고요, 사회체육 없이 공익의 실현을 추구해요. 제 경우 어스킴과 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스킴과 퍼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인지 우리 방에 오면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 개발을 위해 그만큼 사담은 있어요. 어시에서도 올해부터 17년에 관계하고 있어요.

-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치를 따지지 않고 넘어가는 것 허용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얘기를 작성적으로 하게 되지요. 요즘 국회에서도 그렇지요.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내버려두지 않고 잡잖아요. 양심을 걸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상대방은 그걸 지나가고 싶은데 못하게 하거나 무언해 하지요. 또 뽀빠리만 일해야 되는데 안되면 대놓고 "상식없음"을 생각해보라. 그게 많이 되는 소리가요. 압축해요. 이런 태도들이 상대방에게 거부감을 일으키는 거지요.

- 최근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지만 낮은 소득과 적은 실직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Working Poor)이 1백30여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를 상충하는 국민12명중 한 명에게도 할 줄 모르거나 사생활이 공개되는 것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학이 있을지요.

근로빈곤층에 대한 실용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대책'을 마련했어요. 우선 부담이 가장 큰 의료 교육 주거 분야의 복지를 강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 지원, 자활지원 정책 대상화 등 근로빈곤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추진중이고요. 일을 더 할수록 혜택이 많아지는 '근로소득보전제(ETC)'의 도입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ETC란 저소득 계층의 소득에 작업장생계비 등을 고려해 상한한 공제액(Tax Credit)보다 적은 경우 차액을 환급해 주는 제도예요.

- 출산율 저하도 심각인데 어떤 해결책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봅니다. 관계 기관들과 협조해 우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논의하고 다른 나라 사례와 우리 나라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정도까지 얘기했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요.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실은 10년 전쯤에 경각심을 가졌어야 되는데 늦었지요.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어요. 인구가 줄어드는 건 2018~2019년부터거든요. 남은 10년 동안 다양한 수단을 써요.

여성들이 교육과 직장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스템과 직장인 사립들이 결혼해서 일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만들어야지요. 이런 일종의 문화까지 형성거든요. 외식 교육이 있어야지요. 애초에 장관이 얘기하는데, 지방대 학생들이 결혼도 안하고 아이도 안 낳으려는 건 가장을 이룰고 자식을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 주거 자녀교육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정책 그 다음에 사회적 책임과 의식 교육이든 뭐든 할 것 아닙니까. 저출산 정책이든 기술평가든 사회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 청년실업 문제의 해결책은.

우리 세대는 대학 졸업자가 20%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 졸업하면 웬만해 한 직이 됐지요. 진학 못한 80%는 조인이 낮

은 직장에 갔어요. 지금은 80%가 대학을 나오는데 예전에 대학자들이 가던 직장은 30%밖에 없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도 일자리가 없는 건 아니에요. 40만개가 있는데 그 자리에 외국인을 채용했잖아요. 이 문제는 국민소득이 1만5천불쯤 되면 끝연적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1만5천불 이하, 그러니까 월급 1백만~1백50만원짜리 이하 직장엔 안 갑니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평균소득도 안되는 직장에 갈다는 걸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이런 현상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더해져요. 유럽은 우리보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요. 사회보장이 돼 취업을 안하고도 생계를 할 수 있으니까요.

- 우리와 유럽의 경우는 다르지 않을까요.

우리도 가능해요. 독일의 경우 평균 소득이 2만5천불 가량 되는데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었어요. 대학생들이 학교를 너무 오래 다녀 8년 이상 못 다니도록 대학생 정년제를 도입했어요. 그들이 어학은 물론 두드러지거든요. 그런데도 국가가 운영하는

으로 지원규모를 확대할 겁니다.

- 한편에선 정부의 대학 관련 정책이 서둘러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서울대의 역할은 각 분야의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서울대의 특징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견제를 많이 받는 거지요. 그렇다고 서울대를 폐지하거나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요. 서울대가 폐지된다는 것은 고급인력 양성제도가 후퇴한다는 말이에요.

다만 서울대가 좀 더 개방적으로 될 필요는 있었지요. 학부보다 대학원에 중점을 두 각 대학에서 수준 높은 연구를 할 사람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고급인력으로 양성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학부에선 사회적인 돈벌이와는 관계없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분야, 즉 수확이나 철학, 역사 같은 분야를 운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분야의 인재 육성은 필히 국가가 해야 하니까요. 대신에 의학, 경영학, 법률, 사회복지, 교육, 공학 같은 사회적 수요가 많은 분야는 대학원에서 타대학 학생들을 받아서 양성하는 쪽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자리 창출·자활 지원 정책 추진 재교육·평생학습 등 자기계발 필요

전 취업자들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많이 만들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1인당 5천불 이하를 수출하는데 독일은 1만불 이상을 수출해요. 내수에서 1만5천불을 생산하니까 1인당 2만5천불을 어치를 생산하는 거지요. 그렇게 벌어들이면 돈으로 사회안전망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10%의 실업률도 커버되고요.

- 우리도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리라 보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렇게 인종엔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부존자원이 없는데 다른 나라의 지원을 수입해요. 부가가치를 수출에 수출해 왔어요. 이제부터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야 해요. 그러자면 기술개발과 인적자원 개발이 필수적이요.

- 그러자면 국내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할 텐데요. 대학 스스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정부도 그런 대학에 대해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등 획기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구조개혁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요. 급변하는 대학구조개혁 재정지원 사업 예산으로 8백억원을 확보했고 연차적

니다. 그렇게 해서 학부 대 대학원생의 비율이 지금의 2대 1에서 거꾸로 되도록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 대학원 진학이 종래의 대학 진학과 같은 수준이 된다는 뜻인가요.

10년 전까지는 그랬지요.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지고 글로벌화되다보니 법률, 외교, 경영학, 교육 등 여러 분야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려면 전문대학원 졸업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국민소득 1만5천불이 됐다는 것은 그런 고급인력을 가져야 하는 사회라는 거지요.

- 그렇게 되면 공부하는 기간은 길어지고 취업일정은 높아질 텐데요. 청년은 자부 만족하고, 결국 일할 수 있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아니냐고요.

동일직종에서의 청년을 얘기하기 때문입니. 일하는 청년은 늘어나요. 한 직장에서 청년을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요.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자기를 재교육하고 평생 학습을 해서 자부 개발해야 해요. 동일직종에선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조직 자체가 경직되거든요. 공무원만 해도 58세까지 공무원을 하고 나면 58세부터 70세까지 할 할 건지는 공무원들이 많은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거지요. 공무원 청년을

역으로 65세로 늘려야 하지 않겠나. 자부 자기의 청년을 늘려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요.

- 그러자면 나이 든 사람을 위한 일자리가 있어야 하겠지요?

물론이지. 국가나 사회가 그런 영역을 개척해야지요. 스스로도 개척해야 하구요. 가령 가지면 55세까지 일한 다음엔 소속 시가 없어도 좋은 기사를 써서 팔 수 있는 프리랜서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지요. 자료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전문도 넓히고, 지금까지는 주6일제여서 어려웠지만 이제 주5일제나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 대학 등 사회적 시설을 이용해야 하고요. 지금은 오후 5시부터 학내부를 답답하고, 방학 때도 닫고. 그럼 1년에 며칠을 쓰는 겁니까, 그러지 말고 밤 9시까지 4시간을 더 쓰고 방학 동안도 쓰자는 거지요. 하루 8시간 쓰면 월 12시간 쓰고, 방학 석달도 쓰면 65%의 가동률이 더 생기는 거지요. 시설 활용도가 높아지면 생산도 더 많이 제공할 수 있겠지요.

- 어떤 문물과 기법이 지나치지는 주 환경은?

정치를 오래 하다보니 어쩌다 국회의원들이 많고, 고등학교·대학교 동지들이 많아요. 술은 천엔 많이 마셨어요. 학교 다닐 때는 소주 10병도 마시고 보통 한 잔에서 소주 7~8병은 먹었어요. 요새는 반 병 정도예요. 반 병 정도면 술은 더 마실 수 있는데 참이네요.

-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취미와 일정도 알려주세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거지요. 아침 6시쯤 일어나 신문 보고, 아침 먹고, 8시에 출근해요. 조찬모임이 있으면 1시간 앞당겨서 움직이고, 아침 8시부터 오전에 회의만 두 세 가지 해요. 점심도 대개 업무상 모임이요. 뉴스는 인터넷이나 YTN으로 보고 지름길 걸로하다 12시 넘어 잡니다. TV는 축구나 바둑처럼 복잡하지 않은 걸 봅니다. 바둑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워 2급쯤 되지요.

- 대통령께서 생가를 돌아다니는 일을 한걸 부끄러워 보이시네요. 총리님께서도 부끄러워나 사진을 위해 모종의 조치(?)을 취하실 생각은 없으시지요.

원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경 안 써요. 귀찮기도 하고. 맑은 일 외에 다른데 신경 쓰게 할 게 없어요. 선거 때도 사진이 찍혔을 날 사진으로 홍보를 만든 적이 많아요. 세로 찍은 사진과 이젠 사진으로 만든 게 반반씩 될 거예요. 국회의원만 아니냐 양복도 안 입었을 텐데 할 수 없이 입고 다녀요.

- 동향의 한 분으로서 동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모교에 기부를 많이 해서 하버드보다 더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야지요. 학교의 역사가 50~60년쯤 돼 동문들이 사회의 지도자가 돼 있고 학교를 통해 국가에 맡기었고 동문들이 많아져요. 동향회 모교로 오면 알바든 좋은 대학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의 우수한 대학들은 국가 지원금보다 동문들의 지원금이 더 많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같은 곳을 보면 주정부는 최소한의 지원만 합니다. 나머지는 다 동문들이 지원해요.

- 바쁜신 가운데 동향회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0만 동문을 대신해서 건물을 기원합니다.

(정리=安東賢기자)

“건강하고 균형 잡힌 한미관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특별 인터뷰 洪錫炫 주미 대사

북한의 핵 보유 선언으로 한반도 안보가 우려되는 가운데 洪錫炫(전자68-72)동문 이 2월 22일부로 주미 대사에 부임했다. 취임선언도 떠나기 전 중앙일보에서 만난 洪대사는 “무거운 짐을 지고 낯선 세상으로 가는 심정”이라며 “하지만 이 집에는 국민 모두의 염원이 담겨 있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교를 세계 일류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동문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洪대사의 주미 대사로서의 계획, 삶아온 길, 동창회에 바라는 점 등을 들어보았다.

대답 : 본보 김민호는심위원 (KBS 이사)



거창에는 양의 본분보다는 전일 또는 딸아지지만 인터넷서널 헤럴드 트리뷰를 통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긴밀한 연락을 취하고 있으며, 그 외 빌 프리스트 상원의원, 에이머리 후튼-커트웰은 하원의원 등 여러 의원들과도 잘 알고 지냅니다.

—조금 성급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미 대사를 맡은 이후 UN사무총장에 도전할 것이란 관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향후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우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할 생각이에요. 워싱턴이 낯선 곳은 아니지만 대사직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사직 수행에 매진하면서 도차할 유엔 사무총장이 아시아지역에 주어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정부가 도와준다면 한국의 대표로서 그 자리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나갈 생각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직은 한반도의 장애를 결정하는 데도 매우 중요한 자리인 동시에 국제사회를 위해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으로 있으면서 여러 차례 신문개혁을 통해 구독률 1, 2위를 다투는 일간지로 성장했고요. 한 개인의 거취에 의해서 중앙일보의 보도태도라든지 독자베이스가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제가 떠나 있는 동안에 더 큰 성과를 이룰 것으로 믿습니다.

—스탠포드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밟고 세계신문학회장을 맡아 오면서 미 관계, 경제, 언론계 사법과의 유대가 돈독하다고

발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교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경제학으로 진로를 바꾸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먼저 공과대학에 들어가게 된 동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간 당시 경제개발과 함께 공과대학 분야에 유망시작 겪은 4·19의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법학, 정치학 등의 학문을 전공해 공무원이 된다는 것에 거부반응이 있었죠. 시험할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기 때문에 韓大 입학은 생각도 안 했었고요.

나중에 경제학으로 전공을 바꾸게 된 것은 우선 공학에 대한 열정이 식었고 미국의 대학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사람 중 많은 이들이 수학, 과학, 공학 등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고무돼 ‘나도 한번 도전’이란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부친 洪漢基(법학40졸), 누이 洪漢惠(응용미술63-67), 남동생 洪漢鎭(법학71-75), 洪漢熙(사학73-77), 洪漢睦(외교75-79) 등 5기 가운데는 당시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변에서는 “전통학구 귀족 가문”이라는 말까지 들리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안을 놓고 그렇게 말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안에서 좋은 밑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부정적인 이미지도 느껴지는군요.

—남동생 洪鎭을 이제까지 洪동문을 중심으로 평탄하게 살아온 인물로 생각하고 있는데, 洪동문 자신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미 대사 부임을 축하드립니다. 83년 재우부 장관 비서관, 대통령 비서실 보좌관 이후 22년째 공직으로의 복귀입니다. 취임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세계은행의 이코노미스트, 재우부 및 청와대 근무, 한국개발연구원(KDI), 그리고 삼성코닝 등 공직과 정책연구원 및 기업에서 일한 경험에 더해 지난 11년간 중앙일보를 이끌면서 저의 삶이 이제까지 ‘공익’과 유관한 일투의 연속이었던 것 같군요. 더욱이 아시아 지역 출신으로 처음으로 세계신문학회(WAN) 회장직에 선임되고 다시 재임해 3년 가까이 일하면서 단순히 한국인으로 끝 아니라 세계 신문업계의 발전을 위해 고심했고, 또 상당부분 기여한 바도 있었다고 자부합니다.

주미 대사직을 받고 적잖게 고민했어요. 오랜 변민과 주변의 지인들과도 상의한 끝에 공직을 수락하기로 한 때는 우리가 처한 현재의 상황에서 본인이 걸어온 길과 경험이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 기여할 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요. 한 개인의 평안을 떠나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은 그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관계와 남북문제가 얽혀있고 상황이 우리의 기대와 달리 낙관할 수만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과 함께 본인의 모든 경험과 국내의 인맥을 동원해 도전을 해쳐나가기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도 주미 대사직 수락에 작용했습니다.

—주미 대사로서 들어야 할 시급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북핵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공식 선언하고 더불어 6자 회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6자 회담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 보유 성명이 있기 전만 해도 오는 3, 4, 5월 중에는 4차 6자 회담이 열릴 것으로 많은 사람이 전망했지요. 잘 알다시피 부시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북한에 대한 포선을 상당히 자제했고 또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희망적인 관측을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성명을 읽으면서 상당히 실

망했어요. 다만 북한을 한번 이해해 주는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미국과의 성의 있는 태도를 재차 촉구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북한을 바라보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끌어내는 정책을 실천해갔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북한의 변화가 하나의 전략, 전술차원에서 이뤄진다고 볼 때 6자 회담을 끝까지 불참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이직도 국민 가운데는 한·미 관계에 대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과 미국간의 정책을 둘러싼 정부 대 정부간의 관계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참여정부 초기에는 많은 분들이 우려했던 것같이 격정할 만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 사이에 양국 정상이 수 차례 만났고 이라크 파병처럼 긴밀한 협조도 이뤄졌죠. 또 전임자인 韓曄洲대사님

짐 지고 낯선 세상으로 가는 심정 ‘북핵 문제’ 한·미 정책공조가 최선

을 비롯한 대미 외교 라인의 노력으로 인해 최근에 들어 와서는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했고요. 다만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 고조된 반미감정과 그에 상응해 미국도 일종의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아직 감점제 양국은 자신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워싱턴에 부임한 뒤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한·미 동맹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균형된 모습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미 대사 부임이 중앙일보의 사시밀과 사세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중앙일보 대주주로서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중앙일보가 올해 40주년을 맞습니다. 중앙일보의 사시, 문화가 하루하루에 이뤄진 게 아닙니다. 특히 지난 11년 동안 발행인

을했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사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신문에 보도되기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과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나왔는데 파장된 보도입니다. 개인적인 교분이 없고 다만 라이스 국무장관과 친분을 맺고 있는 분들을 잘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 그를 발탁했던 스탠포드대학 다니엘 오키모토 교수, 라이스를 부총장으로 한 한 하트그리트 캐스와 前총장 등과 가깝기 때문에 간접적인 교분 관계는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언론인으로 활동하며 워싱턴포스트의 발행인인 도널드 그레이언과 는 형제 같은 관계를 맺고 있고 월스트리트저널의 발행인 카렌하우스와 퍼터 회장 부부, 뉴스위크의 리처드 스톰스 회장 때도 친분이 두터운 편이지요. 뉴욕타임스의 셸비



✓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큰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을 순조롭게 마쳤다는 점에서는 운실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격변기(4·19) 시절 부친의 육고는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안다시피 99년 못하지 않은 일에 휘말려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저의 인생관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생전에 부친께서 자녀들에게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으셨을 텐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공부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셨습다. 본인 스스로 숭수수만 하시며 늘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특히 다른 본들과 달랐던 것은, 그 세대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할 하는데, 자식들과 토론을 즐겨 하셨어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민주적인 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홍재들은 자주 모이는 편인가요?

우리 집안의 우애는 상당히 좋습니다. 노모가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매우 토요일어는 모이려고 노력합니다만 다들 바쁘다 보니, 평균 한 달에 2번 정도 보는 것 같네요. 누님은 집안의 달이로서 육남매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중·고등학교 때는 전형적인 우등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풀을 반장, 회장을 맡는 등 전형적인 모범생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들어와 동아리 활동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불교학생회 '금나'란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한 달에 한두 번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 활동에는 소극적이었죠.

—대학시절 특히 친했던 동기·리더가 기억에 남는 교수님은 없으셨습니까?

대학교 때도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명문고 출신들이 대학에 들어와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보다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

들과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웠지요. 그래서 타 학교 출신 중에 소외감을 느끼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 물리학을 가르치셨던 차명태교수님이 지금도 인상에 남는데, 양자역학을 참 재미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평소 휴식시간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것도 진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하는 일이 신부·출판업이다 보니 책을 많이

아내는 우리 집안을 잘 아는 분의 소개로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76년 박사 학위과정 도중에 귀국을 해서 보고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스탠포드대학 한국총동문회장을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 멤버를 소개해 주십시오.

동문회 회장을 맡아 한 3년 했는데, 지금은 어둡습니다. 동문으로는 故 金在容 前청와

대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립대이기 때문에 감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았지요. 韓僑會총장님도 강조하고 계시지만 대학원 중심의 대학으로 변화해 연구 기능이 세계적인 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선행돼야 하겠지요.

또한 대학에 학생 생활권을 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대학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우수한 학생들을 뽑을 때 서울대 역시 경쟁력이 올라가리라 봅니다.

대학교육과 관련해 10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예일대학 총장의 강연이 인상에 남습니다. 당시 '일본이 미국을 따라 잡는다', '일본이 곧 1등이 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그분의 말씀은 대학 경쟁력이 미국에 있는 한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었지요. 우리도 세계 10위 경제대국인데, 정말 일류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일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서울대 총동창회가 세계적인 유수 대학 동창회만큼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그런 의미에서는 충실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동분들의 자발적인 모교 사랑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교 사랑 운동의 요체는 역시 과감한 기부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교는 우리가 사회 각계각층의 리더로 클 수 있게 한 밑거름입니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다시 학교에 일정 부분을 돌려주는 일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요. 하버드, 스탠포드 등 외국의 일류대학의 동창들이 기부하는 액수를 비교해 봐도 서울대가 1백억원 밖에 안 나올까 싶는데, 동창회에서 체계적으로 모교 사랑 캠페인을 벌인다면 모교를 떠난 시일 내에 세계 일류대학으로 키우는 동시에 동창회도 함께 발전하리라 믿습니다.

—끝으로 오는 5월에 미국동창회에서 평의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참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동분들의 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리=金南柱 玆)



큰 누님 중심 돼 6남매 자주 모여 모교 후원이 세계 일류대 밑거름

읽게 되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골프장에 가고 있습니다. 한디랩은 현대 중반 정도입니다.

—가족을 소개해 주시면서 부인을 만나게 된 이야기도 함께 해 주십시오.

2남1녀를 두고 있어요. 큰 아이는 연세대를 다니다가 군 전역후 미국의 대학을 졸업하고 최근 액센츄어 코퍼아를 퇴사해 3월부터 중앙일보에서 일하게 됩니다. 둘째는 이화여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지금 동 대학에서 미술사로 석사과정을 밟고 있지만 이번에 미국에 함께 가서 그곳에서 공부를 계속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막내는 프린스턴대 2학년에 재학중입니다.

대 경제수석, '徐相穆 前국회의원, 玄在靑 (법학67-71)중앙그룹 회장, 陳大滿 (전자70-74)정보통신부 장관, 趙壽禧 (무역72-76)주영 대사 등이 있습니다.

—전자공학과 동기 모임엔 잘 참석하시나요?

이메일을 통해 소식을 전하고는 있는데 모임에 나가질 못해 동기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모임은 환영돼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세간에는 서울대학교에 대한 말들이 많습니다. 만약 洪동문이 서울대 총장이 된다면 어떤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어려운 질문인데, 서울대가 1백억 원에

동문기자 취재주첩

꼴찌 하다 1등한 학생은 서울대 못간다?

2003년 겨울, 보스톤.

뉴욕과파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년 겨울, 보스톤에 있는 하버드대학에 갔습니다. 캠퍼스 지역, 고층스카이라인을 항상 마음을 들뜨게 하지요. 하버드에서 오랫동안 변질관으로 인해 온 한 여성을 만났습니다. 세계 최고와 대학이 신입생들을 뽑는 기준이 궁금했거든요. 그에 따르면 하버드의 목표는 '세계적인 리더를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름 위해 우선 '발전가능성'이 큰 사람을 선발합니다. 한 학생이 대학에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얼마나 upgrade를 시킬 수 있는지가 이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성적의 trend가 중요합니다. 최종 성적이 비슷하더라도 그때까지의 과정이 하향이나 수평이냐 상향이냐에 따라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같은 1등이라도, 계속 1등 하는 학생보다 꼴찌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학생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버드가 중시하는 또 하나의 선발기준은 '다양성'입니다. 지역과 인종, 국가,

종교 등의 면에서 가능한 한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을 뽑습니다. 미국의 50개 주에서 모두 최소한 1명 이상의 신입생이 나오도록 한다는 게 클론의 원칙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측은 사원이 적은 하와이주에서 매년 신입생을 고르느라 고심한다고 합니다. 유럽은 물론, 아시아와 아프리카 학생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하버드가 이처럼 가급적 다양한 출신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려는 것은 학생들이 '감의실보다' 계속해서 배우는 게 더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 겨울, 서울.

3년간의 뉴욕생활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이란 곳은 바깥이든 하지도, 모든 게 좀 백백하다는 느낌이 들지요. 특히 대학입시를 생각하면 무섭기도 하고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가 있어서인지 입시지시기 눈에 잘 들어옵니다.

하루는 신문에서 서울대가 농어촌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뽑는다는 뉴스를 봤습

니다. 제 자신이 강원도 시골출신이라 더 눈에 띄게 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하버드 신입기준의 '다양성' 추구의 맥이 통하는 내용이라고 느껴졌습다.

대입수능성적이 발표되는 날은 회사 곳에서 학부모들의 회비가 교차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고3 딸의 언더인 점도 선배의



金京中

(법학78-82)

MBC 문화기획부 기자

열날은 환하고 여유가 있네요. "점수가 어때요?"라고 여쭙자니 답이 "괜찮아!"였습니다. 내친김에 덕담으로 질문 하나 던졌습다. "혹시 만점 아니요?" 그랬더니 놀라운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은이

통했나 봐요."

외고에 다니는 그 학생이 고교에 입학할 때는 거의 꼴찌였다고 합니다. '강남 엄마'들과 달리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은 걸 과였습다. 그런데 시험을 볼 때마다 점수 올라가. 2학년 때는 중간합이 됐고 다시 고3 말년에는 1등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최민학과가 법대여서 더 반기웠습다. "파님과 재가 복년도 외쳤네요. 훌륭한 후배를 두게 돼서 자랑스럽다"라고 열정감지 축하인사를 건넸습다.

그런데 그 학생은 서울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내신점수가 낮았기 때문입니다. 서울대는 3년 성적을 평균해서 점수를 매긴다는 설명을 들었습다. 평균하면 중간합에 되지 않는 성적이 지요.

갑자기 하버드가 생각났습다. 이 학생이 만일 하버드에 지원했다면 평가가 어땠을까? '성적의 평균'으로 보면 중간에 불과한 학생. '성적의 trend'로 보면 단연拔群한 학생 - 하버드와 서울대 중 어느 편의 선발기준이 더 나으지 - 귀국인사를 곁에서 동문들께 여쭙보고 싶었습다.

* 그 학생은 서울대생의 꿈을 잡고 K대 법대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습다.

동문기자 취재주첩

정략적 판단으로 '뺏'에 걸린 정치인들

지난 2월 23일 행정수도 이전 후속 대책이 여야간 합의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말이 많았지만 그 과정은 그야말로 진통에 진통을 거듭한 난전이었다.

정치권이 행정수도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춘 것은 지난해 10월.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이 위헌이라는 헌재의 판결 이후였다. 두 달 뒤인 12월, 국회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특위가 구성됐다. 하지만 특위 테이블에 마주 앉은 여야의 입장 차는 상당했다. 열린우리당은 16개 부처가 옮겨가는 행정수도 건설을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자족적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건설 안을 내놓은 것이다. 당시 한나라당은 내부적으로 7개 부처 이전이란 안을 들고 있었다. 합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불만을 가진 한쪽이 한동안 복귀 활동에 불참하는가 하면 마지막 부처 이전 규모를 정할 때의 신경전은 치열했다. 결국 여야는 23일 12부 4처 2청이 연기·공주 지역으로 옮겨가는 내용의 최종 합의문에 서명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총청원 의원들은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수도권 의원들은 원천무효라며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한나라당의 경우 특히 내부 반발이 거셌다. 한나라당은 결국 당내 의회시 조율을 거쳐 여야사단 여야간 합의안을 당원으로 확정했다. 이후 이어 부대하는 일부 의원들은

국회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처럼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과 이에 따른 후속대책 마련의 후속공정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여야 모두 이를 두고 지방분권, 균형 개발 대책이라 부른다. 하지만 지방의 분권이라 무엇이든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정략적으로 시작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초에 신행정수도 건설 문제가 나온 것은 2002년 대선 때다. 선거 마지막 당시 민주당 盧武鉉후보는 충청권 공약의 일환 신행정수도 건설이란 공약을 내놓았다. 당시 한나라당 李會昌후보측은 이를 맹비난했다. 대선 승부는 결국 충청권에서 결판이 났다. 한나라당 내에선 신행정수도 건설 공약을 내세우지 않은 것이 패인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대선 이후 한나라당을 이끌게 된 당시 崔泰源대표는 2003년 정부가 내놓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찬성해 주기로 결정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 법에 반대했다간 충청권에서 한석도 건질 수 없을 것이란 불안감 때문이었다. 결국 나라의 수도가 어디에 정해져든 우선은 표부터 얻고 보자는 정략이 우선적으로 적용됐던 것이다. 충청권 의원들의 눈물 어린 호소 앞에 타 지역 의원들도 이 기세에 반박하지 못했다. 결국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한나라당이 다수당이던 16대 국회 대거에 국회를 통과한다. 하지만 당시 이 법에 대한 한나라당의 판

단이 얼마나 안이했었는지는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드러나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현충의 결정을 분석해 보면 결국 그 속에 정치권에 대한 존엄한 경고의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수도 이전과 같은 국가대사를 정략적인 이해로 판단하지 마라"는 것이다.

이후 한나라당 崔泰源前대표는 이에 대해 "당시로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지만 실제로 이 법이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록 아들이긴



李佳穎

(신문91-96)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건설을 막을 수 있을 것만일 생각을 했다"는 말도 언급했다. 두 번의 대선 패배 후에도 여전히 다수당 의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한나라당의 한 단면을 보여준 소고이다.

崔泰源前대표가 물러난 뒤 남을 맡은 崔泰源前대표에게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은 큰 것이 됐다. 총선 전 충청권 유세에서 그는 "신행정수도 건설 작업이 잘 준비 중"이라며 주민들을 달랬다. 하지만 총선이 끝난 뒤 당내내 반발하는 의원들이 많았고 급기야 현재의 위헌 결정까지 나자 충청권 민심을 어떻게 다독여야 할 지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당내 충청권에선 단 1석만 가진 한나라당으로서는 충청권에서 완전한 비참법이나, 기시환생하느라 갈림길에 서게 된 것이었다.崔泰源前대표는 결국 서두라기라도 삼는 삼청으로 충청권 대책 마련에 나섰고 이후 여야간 합의를 거쳐 후속대책이 확정된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정략적인 판단을 거듭해 가는 정치인들은 결국 그 '정략의 뺏'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점이었다. 나라의 수도를 옮기는 일은 그야말로 '천년 공사'가 아닌지. 그 공사를 두고 그저 표 좀 더 얻어 보겠다고 근사한 식으로 판단하면 그들은 결국 그로 인해 쓸쓸한 모습으로 퇴장했다.

이제 더 이상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 정략적 판단이 아닌 정직 공민을 위한 정치를 펼쳐 나가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동문 기고

노년에도 가슴은 따뜻하고 싶다

"전 대법원장 한강 투신 자살기도..."

TV를 켜고 무심코 저녁 뉴스를 보는데 친 행자의 이 말에 깜짝 놀라 후서 잘못 들었나 싶어 TV 볼륨을 한 단계 높여 들어보았으나 틀림없는 사실이었다. 내용인즉 이 분이 근래 허리 통증으로 밤에 피로하였으면 병원 치료 를 받던 중이라며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한 나라의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의 인생을 회상하는 마지막 순간이 너무도 적절하 다 싶어 마음이 아프고 아무리 몸이 아프기로 서나 어떤 잘못된 사연이 있었기에 그 나이에 그 무서무서한 한강 끝에 투신을 했을지 하는 생각으로 도주지 애써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궁금해서 다음날 아침 조간신문 1면을 차차한 그문에 대한 기사를 읽어보았다.

俞豪強(86) 전 대법원장(1월 17일 오후 5시 45분경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투신이유 는 건강상 문제로 추정된다. 장남에 의하면 "아버지가 3주 전부터 극심한 허리 통증에 시달렸으며 2주 전부터는 너무 고통스러워 자살하 고 싶다"고 보로했다고 말했다. ... 한 지인은 "부인과 사별한 것이 60년이고 많이 외로웠 하겠다." ... 한 대법원 판사는 "어떤 병을 앓아 다 놓을 일장은 아니나 최근에는 여러 가지 노환과 합병증으로 육체적 고통도 심했고 그 우를 충성도 보아줬다는 얘기도 들었다." 요약하면 대강 이런 내용이었다.

나는 이 기사를 읽고 오늘을 살고 있는 노년들이 얼마나 소외된 외로움에 고통스러워 하고 있는지를 짐작하기에 그냥 스쳐 지나칠 수가 없다. 한 나라의 대법원장까지 지낸 분이 먹고 입을 것이 없어 피로했던 것이 아 노 노환과 우울증이 고통의 주원인이란 말은 오늘날 한국의 노년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아 야 하지 않겠는가?

가장의 제일 어른으로서 대접받던 시대였던 노년의 아들이 아무리 고골스롭다 하여도 아심재녀로 문안드라는 자손들로 해서 외로움 시기가 없었을 것이기에 자살까지야 했는가? 이 문제는 비단 이분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기에 -젊은이들이 노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 하기때- 노년의 생각을 파악하 려는 것이다.

물론 나 역시 아무리 젊어 보인다고 하 지라도 젊음 무로 승화하는 나이가 되고 보니 남의 일 같지 않아 노년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는 젊은이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를 소리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의 노년들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식들이 잘 되는 것만 바라 면서 가능한한 자식들에게 예를 깨치지 않겠 다는 생각에서 홀로 서서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은 8·15광복을 겪고 6·25전쟁의 폐해를 경험하고 무에서 우를 창조하시라니 필사의 노력으로 살아온 덕분에 오늘날 자녀들을 최 고학부까지 공부시키고 자식들에게 가능한 한 생활 터전을 마련해 주려고 복안은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쓰고 싶은 것 쓰지 못하고, 갖고 싶은 것도 자재하면서 결성을 살아왔다.

"후유..." 하고 긴 숨을 내쉬면서 이제 자식 들도 제몫을 해야 된 것 같아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살아 보려하니 이미 몸이 늙고 병들어 쇠약해져나 아니면 부작전에 한사람은 지 채 상으로 먼저 떠나버린 후 이기에 그 의롭고 비참함은 이루 설명할 길 없다.

이디 그 편이냐? 젊음 조금조금해진 모습에 제자제자 하여서 늙음도 제대로 못 갖는 말 씀한 노인들을 보면서 저마냥은 생애에 내 모 습도 저렇게 되려나 하며 비참하고, 근한 한 일도 생각하지 않아 하여 치매증상이 오는 것 은 아니까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히기 일췌이

기에 아무리 속이 넓은 사람이라도 노년에 되 면 불안과 초조함이 시도 때도 없이 업습해오 기 마련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노년들은 "그저 같은 정신으로 살다가 제대로 움직이니까 아 프지 말고 자는 듯" 눈감기를 바라는 것이 노년들의 소박한 소망인 것이다.

자식들이야 몰라리지, 키울 때 저를때는 컷 본 것으로 부모의 행복이라 생각해야지, 후련 을 더 바라나"하고 흔하들 말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이는 노인네들이 "빨리 죽고 싶다",

에 부모는 포함시키지 않는 요즈음 자식들의 정서를 읽으면서 이를 지켜보는 노년의 부모 마음은 얼마나 허한지를 자식들은 아는가?

황국시 시대와 부모와 자식은 자식이 당 연한 것 같아진 세상인지 하나 자식을 집에 부모님 시간 같이 놓고 며칠에 한번 정도 눈 안이라도 하는가? 부모 집에는 자식들이며 손 자들 사진 줄줄이 걸려놓고 오가며 눈길 주고 가며하는데 그 속에서 나온 자식 몸들은 부모 의 존재는 아예 멀리 가버리고 말았다.

예전 같은데 호를 할 일이나 너무도 적어 진 부모의 외상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도 서운하는 말도 마음놓고 할 수 없는 세 상이 되고 말았다. 노년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서운하는 말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공허 함은 자식들은 아는가? 몸이 늙었다고 가슴 도 메달렸다고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늙었어 도 심장의 박박은 뛰고 있고 가슴은 따뜻한 다. 사탕을 주고받고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 복하고 소외당하면 절은아보다 더 외롭고 쓸 쓸할 것임을 마려해 볼 수 있지 않은가?

물사 그대도 이제는 주면서 조연으로 그 것도 지나면 엑스트라의 신세가 되고만 노년 들은 가슴에서 찬바람을 일으키는 외로움에 때로는 자살하고 싶은 유혹에서 한동안 벗 어 나지 못한다. 자식들이여! 노년의 부모 마음 을 헤아려 보라! 비록 몸은 늙어도 가슴은 살아 있다. 그 팔의 가슴에 찬바람이 일지 않 고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도록 당신들의 버려 둔 관심을 기울여 보라!

중국의 옛말에 "인생이 흘러가는 것은 빠막 가 달가라는 것을 문물로서 내다보는 것처럼 빨리 사-하다(人生如白駒過隙)라는 말이 있다 하겠다.

젊은이들이여! 당신네들도 연젠가 늘어나 리니 어른들 앞에서 조금은 겸손하고, 조금 반주지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팔의 가슴에 찬바람이 일지 않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그러하여 연젠가 당신들이 우리 나이가 되 었을 때 부모에게 불렀던노라고 불한의 눈물 을 흘리지 말고 되짚어 생각해도 부모에게 최 선을 다 했을음 인정하면서 흐트한 미소를 지 낼 수 있는 찬명한 생활 태도를 자녀들이 어 때할지는?



李仁子

(기독교목55-59)

서경대 석좌교수

건축대 명예교수

장사문들이 "남는 게 없다", 노년네들이 "자 직들이 살다"고 하는 공인된 거짓말이나 다름 게 없다. 이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성스럽기 를 바라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부모 에게 어떤 큰 것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도 아 니다. 다만 부모를 저하되는 가족이려고 생각 하는 마음만 있어도 부모들은 푸른한 행복을 얻는다.

결혼하기 전에는 자식들이 좋은 일 생겨서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면 "자들 이렇게 잘 기 러주니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그 팔의 가슴에 찬바람이 일지 않는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그러하여 연젠가 당신들이 우리 나이가 되 었을 때 부모에게 불렀던노라고 불한의 눈물 을 흘리지 말고 되짚어 생각해도 부모에게 최 선을 다 했을음 인정하면서 흐트한 미소를 지 낼 수 있는 찬명한 생활 태도를 자녀들이 어 때할지는?

箕堂 李漢基선생에 대한 추억

乙酉年 箕堂 李漢基선생님께서 타계하신 10 주년을 맞아, 선생님께서 사랑하고 아끼시는 유족과 친지 그리고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 습니다. 선생님께서 떠나신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허한것과 슬픈 마음이 가시지 않고 있 고, 선생님에 대한 그리운 것이 더욱 솟아나 고 있습니다.

잡망의 어른이시며, 국제법학계의 태두이시 며, 국정의 지도자이셨던 선생님께서 비위된 자라기 너무나도 큰 것 같습니다.

저희 제자들은 각자 선생법에 대해 잊지 못 할 추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큰 희망과 조부님 가지고 서둘러 법대를 입학했을 때 선생님께서서는 높은 학문과 인격으로 저희들을 맞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선생님께서 제자로 받아주시는 것인양도 영광이었으며 가르침을 받는 것은 더욱 큰 기쁨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 일본 공경대에서는 학문 의 기초를 닦으시고, 미국 콜롬비아에대 대학원에서 국제법 판례 연구와 새로운 교수법을 익혀 통안에서는 처음으로 국 제법의 판례교육을 도입해 저희들을 국

도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열악한 교육환경에 서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기쁨으로 먹지 양 크를 묻혀가며 형사판으로 교재를 만들어 세 마나를 준비하는 힘든 작업" 어려움으로 여 제하지 않았습다.

새해를 맞이하면 단음중에 살고 계시던 선 생님들 찾아뵙고 새해 인사를 드리는 것이 제 희망의 새해를 사재는 일이었습니다. 신년 초에 들려주시는 덕담이 많은 세월이 흘렀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새롭습니다. 지역을 섬 비하시고 여원하신 선생님의 말씀을 들면 큰 과대한 재화시절이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추억 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箕堂 선생님께서 풍자에 나사되어 감사원장 과 국무총리를 역임할 때 저희 제자들은 선 생님께서 올바르게 공정한 행정을 펼쳐 국민의 신망을 받으실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 니다.

신아들에게는 높은 학식과 미망으로 제자들 에게 강론을 하셨던 선생님께서서는 공부의 중요 직책을 수인하시는 동안 국가와 사회의 발전 에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평일 교육기관 이사장 재직시

는 역사의 일거지간 훌륭한 역사를 기록한 한 일 견계를, 미래를 생각하는 새로운 협력관계 로 발전시키는데 기여하셨습니다. 특히 외교 일선에서 봉직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선생님



鄭泰翼

(법학61·65)

외교인보국원

본부대사

께서 가르쳐주신 국제법 지식과 인성교육이 국가 이익을 지키고 신장시키는데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할 수 있는 자양분이었습니다.

箕堂 선생님은 은사로 모시고 있다는 공지 심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이 지난 1월 27일 기 념 추모세대를 열어 선생님에 하의를 기리고 남겨두신 교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학맥을 이를 훌륭하고 높은 수준의 논문과 책자들이 발간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의 지도로, 단상한 서울대 법대 국제법학회도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으며, 50주년 회교로도 출판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우리 영토와 주권을 굳게 지 켜 나갔다는 물론 금세기내 큰 민족이 일광하 는 한반도 통일을 달성, 조국에 제3의 거국을 하는 남을 염원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 의 염원을 실현시키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선생님께서 국제법을 통해 국권을 수호하는 것은 물론 국제 사회의 힘의 논리를 석시, 국가의 현실적 함을 기르는 과업의 중 요성을 강조하시는 기교관을 연변에 게재하든 것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현 실에서 선생님의 실용적이고 애국적인 접근방 법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우리 외교정책 수립에도 발상타가 되고 있습 니다. 저희들과 후학들은 선생님이 지향하신 과업을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선생님을 추모하는 행사를 가진 유족과 제 회 제자들은 선생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제 심을 다스 금 확인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선생님을 고이고 있으며 존경하고 있습니다. (鄭仁子)는 회장이 되었고 선생님은 의뢰자 없었습니다. 변희 제주시.

林光澤총장회차 인사



전에는 두배 졸업생 여러분!
금년은 우리 나라가 국권을 빼앗긴지 1백년이 되고 광복된지 곧 60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 기간동안 우리 나라는 우수한 인재를 국가경쟁에 대거 참여시켜 세계 10위권의 경제성장 모범국을 일구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림픽과 월드컵 등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으며 최근 동남아와 중국을 넘어 세계를 향해 퍼지고 있는 한류열풍, 정보 및 생명과학 등 첨단분야에서의 눈부신 성과로 세계 속의 한국으로서 각광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업적이야말로 각계각층에 걸쳐 최고의 인재로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피땀 흘린 서울대인들이 있기에 가능했다는 엄연한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저는 신념으로 사회에 첫걸음을 내딛는 후배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자신있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모든 열정을 쏟는 여러분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는 지금 청량결백한 선비정신과 철두철미한 전문가 정신을 가진 인재들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앞서가며 디지털혁명의 기수이자 공제라고 불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Bill Gates)회장은 "성공은 바로 열정이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을 택하여 열정을 100%倾注한다면 성공은 저절로 따라 온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는 영문 하버드대학에 입학했으나 오랫동안 계획했던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열아홉의 젊은 나이에 회사를 설립,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석권하기에 이르렀지요.

그뿐 아니라 그는 세계 최고의 갑부이며, 작년까지 2백억 달러를 기부한 세계 최고의 자선가이기도 합니다.

빌 게이츠야말로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끊임없는 열정을 불태움으로써 이 시대 자기분야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최고의 전문가가 된 것입니다.

"나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만의 소중한 '끼'를 한껏 발휘하여 앞으로 몸담게 될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십시오. 그리고 양취한 것은 마음껏 누리되 허락 받지 못한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며 또한 그들을 섬기십시오.

서울대인으로서 그동안 갈고 닦은 도전정신과 선비정신을 바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선진국의 대열에 당당히 입성하는 희망의 내일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서울대인이 짊어져야 할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삶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에는 졸업생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은 동창회의 신입회원이 됩니다.

여러분보다 먼저 모교를 떠난 30만 선배 동문들은 '서울대가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는 개지크라이에 아예 조국에 대한 무한책임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서울대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서울대 가족의 일원으로서 대학살에 못 다한 모교에의 애정을 동창회를 통해 마음껏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모교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걸맞는 '세계 속의 Top 10 대학' '점점 좋아지는 대학'으로 자리 매김하도록 우리 모두 모교 발전에 대한 열정과 의지를 한데 모읍시다.

金相國교수 등 25명
정년· 명예퇴임

지난 2월 28일 관악캠퍼스 문화관 강당에서 鄭義雄총장을 비롯한 보직교수와 재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22명의 교수 정년과 3명의 교수 명예퇴임 기념식이 열렸다. 李秉根(국어국문학)교수, 俞平復(영어영문학)교수, 金榮奎(식물영양학)교수는 지난 해 8월 31일자로 명예퇴임을 했으며, 이날 정년을 맞은 교수 명단은 다음과 같다.

金相國(국어국문학)교수, 金相植(영어영문학)교수, 朴南植(영어영문학)교수, 李光雄(생명과학)교수, 金貞煥(지구환경과학)교수, 崔鍾泰(경영학)교수, 盧玄鉉(기계공학)교수, 鄭維雄(농경제사회학)교수, 金顯植(농생명공학)교수, 金文基(생물자원공학)교수, 高學煥(생물자원공학)교수, 鄭慶泰(생물자원공학)교수, 金榮奎(식물영양학)교수, 李洪潤(교육학)교수, 韓慶益(지리교육)교수, 禹圭植(화학교육)교수, 權南興(체육교육)교수, 文昌奎(의학)교수, 金白培(제약학)교수.

(영어영문학)교수, 李光雄(영어학)교수, 朴南植(지리학)교수, 李光雄(수리과학)교수, 李光雄(생명과학)교수, 金貞煥(지구환경과학)교수, 崔鍾泰(경영학)교수, 盧玄鉉(기계공학)교수, 鄭維雄(농경제사회학)교수, 金顯植(농생명공학)교수, 金文基(생물자원공학)교수, 高學煥(생물자원공학)교수, 鄭慶泰(생물자원공학)교수, 金榮奎(식물영양학)교수, 李洪潤(교육학)교수, 韓慶益(지리교육)교수, 禹圭植(화학교육)교수, 權南興(체육교육)교수, 文昌奎(의학)교수, 金白培(제약학)교수.

기계항공공학부 박흥載교수

80억대 벤처기업 주식 내보

모교 '실용실 벤처 1호' SNU프라이시전 대표인 기계항공공학부 박흥載(기계설계79-83)교수가 모교 공대에 본인 소유 주식 10만주를 기부했다.

참교수는 지난 1월 25일 자신의 벤처기업들 코스타에 성공적으로 등록한 뒤 보유 주식 1백만여주 가운데 10%를 공대 교육연구재단에 지원하기로 전달했다.

이에 모교는 참교수가 내놓은 지원금으로 'SNU프라이시전-벤처

연구기금'을 설립,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 실용실 연구성과의 국내의 특허출원 지원에 사용하거나 벤처연구활동 등에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SNU프라이시전은 1998년 2월 참교수와 기계공학과 실용실 대학원생 5명이 창업한 모교 실용실 창업벤처 1호로, 최근 대학 실용실 벤처로는 처음으로 코스닥 시장에 등록하면서 시가총액이 2천억원대를 기록했다.



좌로부터 박흥載교수, 鄭義雄총장, 金相植대표

또 추가로 SNU프라이시전과 대우주변회사를 합친다면 동원증권(대표 金柳政)은 지난 2월 18일 모교 공대연구기금으로 각각 1억 원과 2억원을 기부했다.

신앙문화재단 鄭哲奎이사장

공학·학술기금 20억 기부

신앙문화재단 鄭哲奎(화학48-52 재단법인 관악회 이사)이사장(사진)이 지난해 11월 2일 신앙학술정보관을 건립해 모교에 기증한 데 이어 12월에 신앙문화연구기금으로 10억원을 출연해 이 기금에서 발행하는 과실권을 탁월한 연구실적을 달성한 과제 교수 및 학생에게 연구 상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월에 신앙문화재단 기금으로 10억원을 약정하고 4억

원을 이미 쾌척했으며, 오는 7월까지 잔액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 기금은 정보문화 연합전공 기금교수를 초빙하는데 사용하기로 했다. 鄭이사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학과를 지원해 왔으나 모교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모교 측의 희망에 따라 인문계 학과의 발전을 위해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鄭이사장은 "재력이 있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Noblesse Oblige 정신의 실천으로 우리 나라도 선진사회복지국가로 진입하기 위한 기부 문화가 하루속히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남순환도로 정문 앞 지하화

관악 IC 설치 추가 논의키로

예초 강남순환 도시간속도로의 모교 중문 앞 구간에 설치하려던 고가도로가 지하도로로 변경된다.

모교는 지난 2월 20일 서울시와 8차례 협의한 결과 모교 정문 앞 고가도로를 지하도로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강남순환도로 건설에 잠정합의하고, 관악 IC 설치

추가를 논의키로 했다.

이로써 강남순환 도시간속도로 건설 공사는 서울시가 환경영향평가협의 사업추진 모교와 협의의 마지라는 확정부의 요구를 충족'함에 따라 앞으로 2010년 완공을 목표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보상절차가 끝나

는 대로 동서구간에 대한 구구별 공사에 들어가면 올해 하반기에는 도로건설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울대와의 잠정합의로 큰 짐을 벗었다"고 말했다.

강남순환 도시간속도로는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고질적인 정체해소하기 위해 수하나들목에서 서운대앞을 거쳐 안양천교까지 동서 구간 22.9km와 안양천교에서 성산교 남단까지 남북구간 11.9km를 연결하도록 설계된 37.8km의 왕복 4~6차로 간선도로다.



평의원회

신임 의장에 공대 權旭鉉교수

모교 평의원회(의장 金榮奎)는 지난 2월 3일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본회 林光澤회장을 비롯해 YBM지사 閔善植(경제78-82)사장, 법무법인 삼정 林南興(경제78-83)년소사, 교육부 金永奎(현대문81-87)차관 등 학내외 권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의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金榮奎(행정59-63)의장이 정년을 맞아 오정 수행이 어렵게 됨에 따라 평의원회는 부의장을 맡고 있는 공대 전기공학부 權旭鉉(전기62-66)교수를 신임 의장에 선임했다.

이해 현재 모교의 주요 사안인 기성학회 인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수의과대 학장에
梁日鎬교수 선임

지난 3월 1일 수의과대학 학장에 수의학과 梁日鎬교수(사진)를 선임했다.

신임 학장직은 1968년 경성대 수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3년 모교 대학원에 입학, 석·박사 학위를 마쳤다. 1977년 모교에 부임해 수의생리학과를 가르쳐왔으며, 모교 수의과학연구소 감사, 대한 수의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亨)

서울대 가족 申堯澈 지성병원 원장

부인·세 딸·아들 등 여섯 식구 모두 'O형'

“변호사 만사위 포함해서 국제적으로도 기여했으면”

혈액형이 O형인 사람은 대개 낙관적이고, 의욕이 넘치며 열정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 또 불임상이 있고 리더십이 강해 주위에 친구가 많이지 않는 의리파로 통한다.

작업도, 관심분야도, 취미도 제각각이지만 이러한 O형의 특징을 고스란히 지니고 있는 동문 가족을 소개한다.

30년 전 친구로나 다름없었던 서울의 영등포 모터리에 지성외과(현 지성병원)를 개설, 어려운 환자들을 돌보던 열정을 쏟아온 申堯澈(의학54·61 지성병원 원장) 동문을 비롯해 부인 文麗子(대학원72·80 지성병원 부원장·선외박치재단 동남아병원후원회장)동문, 장녀 申惠晶(기약82·86 피아니스트)동문, 국제변호사로 활동한 차녀 申喜瑤씨, 이대목동병원 정형외과 교수인 장남 申喜瑒씨와 삼녀 申喜瑤(현약90·94 오디오가)동문까지 혈액형이 'O형'인 대다수 동문 徐東佑(사법81·85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동문을 포함해 모두 전문직업인으로 사회에서 각광을 자랑한다.

학창시절 학생회장과 테니스·마라톤 선수로 활약하며 리더십이 강했던 申堯澈동문은 한때 정치가의 꿈을 키웠으나 재약회사를 운영하던 부인의 권유로 외과전문의의 길을 걷게 됐다. 특히 그는 세계 최대규모의 사회봉사단체인 한국 라이온스 309K지구 초대 총재와 동남아 라이온스 국제이사 등을 맡은 정도로 대외적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부인 文麗子동문은 지난 2월 4일부터 열흘간 라스베이거스에서 60명의 단원들을 이끌고 무료진료와 컴퓨터교육, 이·미용봉사, 음악공연 등을 펼치고 돌아왔다. 40년 가까이 내과전문의로 환자를 돌보며, 지난 1993년부터 도음의 손길 필요한 아시



앞줄 좌로부터 申堯澈·文麗子동문, 뒷줄 좌로부터 徐東佑, 한 명 건너 申惠晶, 한 명 건너 申喜瑒동문

申堯澈동문의 서울대 가족

부인
文麗子(대학원72·80)
사위
徐東佑(사법81·85)
장녀
申惠晶(기약82·86)
삼녀
申喜瑤(현약90·94)

아의 많은 나라에서 의료·선교활동에 헌신해온 文동문은 다음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직은 병원을 지어줄 예정이다.

“아내는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회원들이 정성으로 모은 기금으로 이웃 나라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교파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해요. 늦깎이로 모교 의학 석·박사학위를 밟으면서 고생도 많이 했고, 제가 군요관으로 있던 시절에 생활을 꾸려나가기 위해 아내가 먼저 의원을 개업했어요. 반면에 저는 병사에 더 큰 뜻이 있어 이와는 별도로 지금의 지성병원을 열게 됐습니다. 당시 환자들의 생활수준이 너무 열악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아플 많이 먹었으나 그때마다 아내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었어요. 자녀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열어주고, 남편이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온갖 뒷바라지를 해준 셈이죠. 너무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그 이후로는 아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마음껏 하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했던 어머니의 권유에 따라 장녀 申惠晶동문은 피아니스트의 길을 걸었다. 20년 가까이 대호에서 강사로 활동하며

서울, 미주 전 지역과 유럽에서 순회 공연, 실내악 연주와 교향악단 협연으로 바쁘게 지내왔다.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현재 미국 하트포드 음대에서 음악 교육과정을 이수하며 음악학교를 설립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만사위인 徐東佑변호사 역시 M&A와 외국인투자 등의 국제분야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손꼽힌다.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 수석을 동시에 석관한 徐동문은 기업구조조정팀, 국제재정팀, 국제통상팀을 두루 거치며 관료분야에서 국내의 공직공직인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했다.

광고, 영화 등의 음악을 담당하는 국내 몇 안되는 오디오PD로 활약하고 있는 삼녀 申喜瑤동문은 국내 광고·영화산업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어릴 적부터 기발한 아이디어와 청각실력으로 글자주가 뛰어났던 申喜瑤동문은 고려대학교 때까지는 여러 작품 대회에서 입상한 바이올린 우망주였다. 졸업 무렵, 그녀는 원래의 꿈인 ‘글’을 쓰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광고회사에 입사했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

“아내와 함께 끊임없이 주말 환자를 돌보거나 각자의 분야에서 바쁘게 활동하다 보니 아이들과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집에 있는 동안 항상 책을 읽으며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매사에 감사하려고 당부했어요. 또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린 후 나들이를 떠났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오직 아이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고 아내와 관계 약속했죠.”

그때처럼, 申동문 내외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본 네 자녀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남다른 열정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자기의 확고한 세계를 구축하게 됐다.

“모두 개성이 강한 O형이다 보니 활동분야가 다르고 일에만 전념하는 것과 비뻔하지만, 한 가지 바탕이 있다면 우리 가족이 갖고 있는 공통된 특성과 개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나라를 위해 빛이 기여할 수 있는 ‘인내·세심’한 가족이 되었으면 합니다.”

(表)

동정

수상

▲崔在錫(사회49-53 고려대 명예교수)=지난 3월 1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 호텔 부궁화홀에서 재단법인 3·1 문화재단으로부터 제46회 3·1문화상 학술상(인문·사회과학부문) 수상.

▲鄭九鎬(장지55-59 미디어리서치 회장)=지난 2월 22일 서울 LG강남타워 아도리스홀에서 열린 경복사대부종교 재경동총회 모임에서 지방상권 경복사대부종교인상 수상.

▲卞光珠(언어58-65 한국외대 교수·한국스칸디나비아학회 회장)=지난 2월 4일 주한 스웨덴 대사관에서 스웨덴어 교육과 문화 전파에 기여한 공로로 '북극성 훈장' 수훈.

▲安錫耆(고교인부61-67 모교 고교기술사회과 교수)=지난 2월 18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식에서 지방상권 경복사대부종교인상 수상.

▲金泳夏(화학64-7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지난 3월 1일 서울 홀리데이인서울호텔 부궁화홀에서 재단법인 3·1문화재단으로부터 제46회 3·1문화상 기술상 수상.

▲李泰植(외교64-70 외교통상부 차관)=지난 2월 22일 서울 LG강남타워 아도리스홀에서 열린 경복사대부종교 재경동총회 모임에서 지방상권 경복사대부종교인상 수상.

▲余郭琪(화학65-70 LG화학 기술연구원장)=지난 2월 23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2005년 기술경영인상(최고기술책임자부문) 수상.

▲尹龍朱(의학65-71 모교 소아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22일 서울 LG강남타워 아도리스홀에서 열린 경복사대부종교 재경동총회 모임에서 지방상권 경복사대부종교인상 수상.

▲張永策(외교67-75 연합뉴스 사장)=지난 2월 18일 서울 군인공제회관에서 열린 중동중고등학교 총동문회 신년하례식에서 지방상권 경복사대부종교인상 수상.

▲金潤基(영어교육68-72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지난 2월 17일 서울 상명대 동승동캠퍼스에서 한국연극평론가협회로부터 제8회 여석기연극평론가상 수상.

▲金龍勳(건축69-73 한미파스스 사장)=최근 매경이코노미로부터 '2005년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1백대 CEO'로 선정.

▲安弼朱(영문73-77 외교통상부 통상법률지원팀장)=최근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해결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과정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 수훈.

▲林英應(국어교육73-77 외교통상부 다자통상국장)=최근 새 국무영기구 무역분쟁 해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 수훈.

▲吳馬澤(제약74-78 모교 약학과 교수)=지난 2월 17일 남양달로에 생명약학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

▲郭永鎭(한대원75-80 환경부장관·환경운동회 회장)=지난 2월 18일 대구 제이소호텔에서 열린 영남대 동창회 정기총회에서 제8회 지방상권은 영내인상 수상.

▲李連泰(분분76-80 외교통상부 지역통상국장)=최근 세계무역기구 무역분쟁 해결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 기여한 공로로 홍조 근정훈장 수훈.

▲金敬桓(의학84-90 모교 흥부의과학교실 교수)=지난 2월 12일 태극 치안마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철학관 학회에서 '젊은 연구자상' 수상.

인사

▲邊衡尹(경제45-51 모교 경제학부 명예교수)=지난 2월 1일 원간현대경영의부설 연수기구조설립 현대경영학당 이사장에 취임.

▲趙完士(생물48-52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위원회 이사장)=지난 2월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상의 고문에 추대.

▲李錫王(의학48-54 대한민국의학원 회장)=지난 2월 1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제백신연구소 한국위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姜信浩(의학52 동아제약 회장·분회 고문)=지난 2월 23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총회에서 제30대 회장에 취임.

▲黃海根(토목54-60 통일기술공사 회장)=지난 2월 24일 엔지니어링회관에서 열린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정기총회에서 제6대 이사장에 선임.

▲安秉勳(행정57-61 前조신일보 부사장·LG상남연변재단 이사장·분회 부회장)=지난 1월 26일 방원정 문화재단장기이사회에서 재단 이사장에 선출.

▲南仲九(정치58-64 동아일보 평화연구소·소·문화보수위원회)=최근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겸임교수로 위촉되어 학기부터

'신문취재보도' 과목 강의.

▲鄭泰基(행정60-66 前교보정보통신 사장)=지난 2월 18일 한겨레신문사원부표에서 사장에 선출돼 3월 26일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예정.

▲千璣興(행정62-66 변호사)=지난 2월 21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사법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선출.

▲申碩培(보대원65-67 한국계약협회 전무·보대원동창회장)=지난 2월 24일 서울 반포동 제약회관에서 열린 한국제약협회이사회에서 전무이사에 재선임.

▲朴榮培(영어교육65-72 국민대 교수)=지난 1월 28일 조선대에서 열린 한국영어영문학회 총회에서 임기 2년의 제2대 회장에 선임.

▲梁承泰(법학66-70 특허법원장)=지난 2월 25일 국회 동의안을 거쳐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

▲禹錫亨(법학66-70 인천지법원장)=지난 2월 14일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

▲李景台(경제66-70 前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지난 1월 28일 대외경제정책 연구원(KIEP) 원장에 선임.

▲丁世鉉(외교67-71 前통일부장관)=지난 2월 22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의원대회에서 대표 상임의장에 선출.

▲李基煥(법학67-71 법원행정처장)=지난 3월 1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임명.

▲趙東成(경영67-71 모교 경영학과 교수)=지난 2월 19일 연세대에서 열린 한국경영학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에 취임.

▲徐元鶴(농학68-73 한국인삼공사 진부)=지난 2월 16일 한국인삼공사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

▲李相鎭(의학68-77 경상대 교수)=지난 3월 1일 경상대 의대 학장에 취임.

▲金晉珠(농경제70-77 CI홍소공 대표)=지난 2월 16일 한국 온라인쇼핑협회(舊한국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협회) 회장에 선임.

▲李鍾玉(체육교육70-78 체육과학연구원 연구처장)=지난 2월 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제6대 원장에 선임.

▲趙陽基(무역72-76 前대통령 경제보좌관)=지난 2월 17일 주영국 대사에 임명.

▲許日燮(경영73-77 녹십자 부회장)=지난 2월 24일 열린 한국제약협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2년의 이사진에 추대.

▲河東源(경영74-78 중앙인사위원회의 인력개발국장)=지난 2월 4일 소청심사위원회 소청심사위원에 임명.

▲洪錫圭(외교75-79 보광그룹 회장)=지난 1월 30일 한국광고단체연합회 제25회 아시아광고대회 조직위원장에 선임.

▲朴城完(응미78-82 건국대 교수)=지난 2월 16일 개최된 국제 동화 일러스트레이션전인 노마 콩쿠르 비엔날레(일본)의 국제심사위원에 위촉.

▲崔文海(대리인84출 前MBC 보도제작국 부장)=지난 2월 25일 MBC 주주총회에서 제27대 사장에 선출.

▲李王烈(ACAD 33기 가네스리그를 회장·ACAD동창회 사무처장)=지난 2월 3일 미국 캘리포니아

오콜랜드 캄칸대 대외협력처 부처장 겸 경영학 부교수에 선임.

▲安鎭元(IHPM 6기 시인)=이번 신화기부터 서울정보기능대학 겸임교수로 임용돼 '직업윤리학'을 맡아 강의. 또 최근 서울 홍익동에 한국심성교육개발연구원을 개설했으며, 6권의 시집과 서간문·공트집 출간.

명사

▲李贊植(조소56-61 강원대 명예교수)=지난 3월 3~6일 뉴욕에서 개최된 International Artexpo에서 조각전 개최.

▲李承勳(의학60-66 이병훈소아과의원장·한국 의정회 사무총장)=지난 1월 25일 모교 의대 소아과발전기금으로 매년 1월에 1천만원씩 10년간 기증하기로 약정.

▲李鍾協(기약62-66 중앙대 교수·헬스프링양상을 음악감독 겸 지휘자)=지난 3월 6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비탈디, 하이든 등의 작품으로 헬스프링양상을 제9회 영재콘서트 개최.

▲曹相鎭(현대원67출 前체육부장관·창조작화 이사장)=지난 2월 24일 서울 목동 청송학원 소강당에서 2005년도 장학금 수여식 개최.

▲金文煥(미학64-68 모교 미학과

교수)=지난 2월 17일 성공회대 졸업사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음. 금교수의 학위는 1994년 4년제로 승격한 성공회대의 첫 박사학위이다.

▲宋達美(외교64-68 명지대 초빙 교수)=지난 2월 16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정치·외교학과동창회 정례조찬회에서 '북

한체제, 대남전략의 변화전망과 남북대화'라는 주제로 강연.

▲鄭在英(불문64-69 단국대 교수)=지난 2월 24일 서울 회현동 알리안스 프랑세스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한 자작 소설 '두

내'를 주제로 강연.

▲金春玉(외화64-68 한국전임미술가협회 이사장)=지난 1월 4~17일 서울 정릉 경향신문사 발간 '정동경향 갤러리'에서 남

아시아 자진 해외 파견국 복귀 기념비전 '자연-관계성'전 개최.

▲左承憲(경제67-71 한국경제연구원장)=지난 2월 2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도산아카데미연구원 조찬세미나에서 '경제 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강연.

▲宋致京(기약73-77 중남대 교수)=지난 2월 13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브람스, 모차르트, 크라이슬러, 파가니니,

차이코프스키 등의 작품으로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朴完福(광대원77-79 민주평통

상담위원)=지난 2월 12~21일 캐나다 밴쿠버, 에드먼튼, 캘거리에서 민주평통 자문위원과 한인회교인들을 대상으로 '최근 북한 실상과 평화통일'이란 주제로 강연.

▲金玟美(응용미술81-85 금곡공예가·기미 책방 주얼리 갤러리 대표)=지난 3월 9일부터 4월 5일까지 서울 광장동 가나아트

센터 공예관에서 '꽃과 나비'를 주제로 초대전 개최.

▲金湖實(피아노·87-91 피아니스트)=지난 3월 13일 서울 여의도 영산아트홀에서 피아노 독주회를 개최해 슈베르트, 베르크, 브람스 등의 작품 연주.

▲金泰完(ACAD 44기 민주평통 전안시협회 회장)=지난 2월 17일 전안시에 거주하는 새터민(발북동포) 60여 명과 지역기

관장, 평통자문위원 등 1백20명을 초청해 시금치나누기 행사 주관.

▲薛勇珠(ACAD 53기 前세계일보 사장·중앙보통경제연구원 회장)=지난 2월 18일 선문대에 서 사회교육 전 반에 걸친 공로

로 명예철학 박사학위를 받음.

학 속

동창회관 5층 관악홀에서 화족을 밝힐 등문.

*최성환(역사교육87-92)·김버들 씨=3월 19일 12시 30분.

*이경주(동물자원94-01)·조민영 씨=3월 22일 12시 30분.

추억의 창

韓英淑(가정교육56·60)국제 펜클럽 회원

눈물 흘리며 숯불 피우던 조리실습 시간
단칼에 깨진 공대생과의 미팅 아쉬워

‘서투른 배너로 미용 살 일도/ 세상 깊이를 가늠 못해 하방 짙은 일도/ 몸아름 줄 모르는 활기에 빗장째 부러짐 일도/ 생애의 동반자를 찾아 외눈으로 밤거리를 쏘 다닐 일도/ 무시로 파도쳐 오는 욕심을 쫓아 불내방 같이 불에 뛰어들 일도/ 모두 별들 같이 쪼개지나간 노년의 빈자리애/ 오 늘은 참마와 허랑이 꽃피어 7월이 눈부시다’

까지 노을 붉게 물드는 하늘을 저공으로 비행하는, 한 해 한 달 한 주일이 화살 시간으로 달려간다. 2006년 입학 50주년 기념으로 ‘여행의 꿈’을 계획하고 있다. 모여 기쁨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는 60대에 만나도 언제나 20대로 돌아가는 행복한 청춘이다.

1950년 중학교 입학은 6·25전쟁으로 피난생활, 1953년 고교생활은 ‘정전 반대, 휴전 반대’ 데모로 교실을 비우기도 하던 때, 전정고아, 전쟁미망인, 이산의 슬픔과 굶주림이 집집마다, 집집으로 쌓여 있다.



대학 1학년 때 용두동 선농단 입구에서 동기들과 함께.

개월 때, 서계 구로포자 말기후와 병문으로 배고픔을 먹고 있어던 시절이다. 1956년 팔계에도 대학의 문을 열게 해준 부모

남께 늘 감사한다.

여성의 사회활동은 사주 생 여자의 흉이 있고 외만하면 시험 가정학과에 앉을 보내 현도양자 舞臺의 길을 기도록 권유하던 아버지, 조리실습 시간엔 조별로 동료에 숯불을 피우느라 매운 눈물 흘리며 부채질로 불꽃을 피우던 날, 가스 오븐레인지,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는 유쾌한 교수님들의 팔꿈치는 이야기였다.

아침이요 불 꺼서 밤 국을 끓이던 세월.

교수님은 숙제로 제출한 내 시의 한 줄을 예로 들면서 칭찬을 해 주던 기억이 지금도 잊을 수 없다. (아버지 산소에 다녀와서 쓴 시였음)

3학년 2학기쯤 공대생활과 과 미팅이 약속된 날, 성제는 기술으로 학교에 가니 과제표(李義淑) 아버지가 이 일을 아시고는 단칼에 잘라 버린 일, 생전 처음 부른 해맑은 풍선같이 날려보낸, 파란 하늘... 이루어 졌다면 신나는 사람의 파트너가 됐을까?

21세기는 난내 공히 자아실현의 시대, 여성도 전문직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모든 여성에게 찬양의 박수를 크게 보낸다. 그러나 뒤편이 불일 하나가 되었다. 내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가 인쇄와 근면과 청결력으로 일구어 뿌리내려온 전통음식과 예절은 계속 전승해 자손 만민에게까지 이어가야 한다. 어른 몸경하기, 배우자 서로 존중하기, 세계적인 석학 아돌프 토인비가 한국에 와서 남긴 말에 귀 기울여 보자. “한국이 인류문화에 기여한 단 한가지는孝이다.”孝 사상은 세계적인 사상으로 인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전승되어야 한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김치가 세계인들의 건강식으로 사랑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들의 무궁 무진한 지혜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한다.

신간

금용기업 마케팅

趙泰玄 著



중소기업청 동인전소상공인지원센터장인趙泰玄(대 학원 79-83 서울사이버대 겸임교수)논문

이 금용기업 마케팅의 비전과 전략방향을 모색한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국내 금용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프로 마케팅 리더의 육성이라는 전제하에 마케팅에 대한 기본적 이해에서부터 마케팅활동의 본체와 평가, 마케팅윤리와 윤리경영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에 이르기까지 마케팅 믹스의 전과 포인트와 주요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다. (도서출판 두남판권·값25,000원)

미국 캘리포니아주 상속·법제개혁과 리빙 트러스트(생전신탁)

金性熙 共著

재미총통청 사무총장을 역임한 공인재정계획사 金性熙(경원 67-71)논문이 미국 변호사 그레



이스 김과 공동으로 편찬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제 상속과 상속·신탁에 관한 안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상속제도도 한국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민자들이 상속에 대해 사회학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았다. 고령자의 상담과 상속서류를 만드는 과정에서 경험한 내용을 중심으로 상속과 재산계획에 대한 중요하고 기본적인 점들을 기술했다. (새로운 제언판·값22,000원)

조용수와 民族日報

元熙福 著



죽일보 조용수 사장에 대한 생전. 민족일보보 조용수 사장이 1951년 2월 13일 창간한 일간지. 이 신문은 5-16군사정변 이후 폐간되고, 그는 혁명재판소에서 사형을 선고받아 그해 12월 21일 숨져갔다.

경향신문전국부 元熙福작가가 도사출판 새누리(발행인권호 52-56)를 통해 발간한 민

이 책은 평화통일운동 역사의 중요한 부분을 충실하게 증언해주는 자료집 구성을 하고 있다. (도서출판 새누리권·값15,000원)

어머니와 노트

朴賢實 著



장)등문이 두 번째 수필집을 펴냈다.

어머니와 노트, 약 좀 더 서세요. 팔 먹은 병어리, 출신 파업, 철거지아, 아이를 잘 만드는 여자,와 만나고, 지공차사, 허버드 투 어 등 1986년부터 집필해온 70여 편의 진솔하고 끝없는 이야기를 담았다. (상지파엔이아이·값10,000원)

한글-정각의 노래

許信行 著

동원수(부 장관을 역임한 許信行(농경대62-66)등문이 오랜기간 연구해온 한글-정각의 노래를 시집으로 담아 압축시켜 펴냈다.

특히 열린시대, 무명시대, 연결시대, 사이버시대, 디지털시대,

공연

트리오 파라디아 연주회

-3월 20일 금호아트홀

바이올리니스트 金奎賢(기악 84입·원주시향 객원 악장)등문과 첼리스트 왕재진(현악86-90 원주시향 수석)등문이 파나이스 트리오와 함께 세 번째 공연을 갖는다.

오스트리아 모짜르테움 국립음악원 수석첼리스트 친분을 쌓은 세 연주자는 이날 드보르자크의 3중주 3중주와 베티네티의 파나이스 3중주 2편을 통해 앙상블의 묘

미를 느낄 수 있는 섬세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 문의 : 파라디아 미디어아트 2263-3620)

류진하 피아노 독주회

-3월 26일 영산아트홀

연주자의 김과 함께 교육자의 길을 걷고 있는 피아니스트 류진하(피아노86-90 서울대 강사)등문이 3월 15일 청주 공연에 이어 26일 오후 3시 서울 영산아트홀에서 파나이스 독주회를 개최한다.

이날 모차르트, 쇼팽, 브람스 등의 작품을 선보인다. (공연 문의 : 예인예술기획 586-0945)



동 2개의 새로운 변화들을 예측하고 제시하고 있어서 흥미를 끌고 있다. (범우사·권·값6,000원)

바람의 여인

鄭昭憲 著

단극대 대학원 鄭昭憲(불문



출간한 후 5년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

이 책은 미국에 귀화한 전쟁 인양고아가 성장하여 한국에 교환교수로 나와 있으면서 자신의 어린 시절, 특히 6·25전쟁에 얽힌 사연을 회고하는 시도로 구성돼 있다. (실천문학사·권·값9,800원)

동창회를 읽다

연령층별 '동문포럼' 열었으면...

대학일 때는 학과단위, 단과단위의 활동이 대부분이지만, 사회 진출 후에는 회사단위, 업종단위의 새로운 조직으로 소속된다. 소속된 집단에 따라 성취 변화하는 동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동창회보에 단과 소식, 학과 소식 외에도 업종별 소식, 회사별 소식 등의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 동문들의 소식을 좀더 넓게 알린 필요가 있다.

또한 회보의 '동정'란을 보면 '수신', '인사', '행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과연 이 내용이 우리 동문들의 실질적인 생활을 얼마나 반영해주는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상식적으로 우리 동문의 사회적 활약을 보면 아마 동창회보 전 지면을 할애한다 해도 회원동정을 그 때 그 때 전부 채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우리 동문들이 졸업 후 얼마나,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므로 여기에 다른 개괄적인 통계자료가 (예를 들어 정부, 기업, 학교, 해외 등) 한상 동창회보의 한 칸을 차지하여 동문 스스로 자기가 속한 조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

내용적이 면에서 미치막으로, 항상 회보의 뒷면을 장식하는 '동창회비 납부자'란을 삭제하고, 동문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면으로 변경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동창회보가 읽기쉬우며 함께 쓰이기로 너무나 쉽게 버려지는 현상이 안타까운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면에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발행간격, 회보지침, 편집스타일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다. 조금씩 바뀌어가는 것이 아닌 한 번에 크게 바뀌어 동문들에게 신선한 충

격을 주었으면 좋겠다.

무엇보다도 지금 같은 신문 형식이 아닌 반듯한 A4 나 B5 크기의 잡지형식의 신중한 회보가 되어 쉽게 버려지지 않고 동문 각자의 스크랩을 통해 학교 홍보에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동창회보로



申 旻 洙

(동강84-88)

서울기술사학원 원장

격을 주었으면 좋겠다.

젊은 동문들은 동창회 관련 행사에 나가길 주저하는데 (못 나가는 것이 아닌 안 나가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 이유는 관련행사를 주로 연령층이 높은 분들의 교류의 장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구나 기구'가 되면 안되겠지만 연령층별 (30대, 40대 등) 동문포럼을 만들어 가거나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학번 동창회 등으로 참가 제한을 하여 연중 적절한 시기에 개최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너무 요구사항이 많지 않나 생각되지만, 우선 순위를 정해 동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동창회와 동창회보의 발전에 위해 필수적이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젊은층의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동창회보를 읽으면서 처음 느꼈던 것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읽기엔 한자의 비중이 너무 크지 않은가'였습니다. 동창회 활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 보통 40~50대 이후이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에 맞춰 글이나 편집이 이뤄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젊은 동문들도 관심 갖고 읽을 수 있는 재미있고 가벼운 기사를 제공해 주시면 어떨까요? 몇 달전의 회비 납부자 명단을 읽어 봤더니 60~70년대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90년대 이후 동문들은 별로 많이 보이지 않았습다. 20~30대 동문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실어 주신다면 회비 납부율도 꽤 올라가지 않을까요?

지난 2월 글 가운데 '회재의 동문' 코너가 눈에 띄더군요. 듀오시장이님 저 회비 납부란 것을 알고 참 반가웠습니다. 게다가 우리 동문에게 회원가입 혜택을 준다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제가 문화예술계에서 일을 하다보니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많은 신문, 잡지들이 문화소식을 크게 다뤄주는데 반해 회보에서는 그런 기사가 적어 보였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뿐 아니라 국내 문화예술계에 훌륭한 선배님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고려를 신살해 그 분들의 소식을 알려주시거나, 직접 글을 정략해 보는 것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코너를 통해 제가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 서울대 모임에 잠깐 소개할까 합니다. 현재 싸이월드에서 '서울대인의 모임'(snumeet.cyworld.com)이란 곳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다름(daum.net)에서 활동하다가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최

단 싸이월드에서 곳으로 옮겨 보고 있는데 동문들과의 친목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생활과학대를 졸업한 박용민(소비과 아동여출)동문이 클럽장으로 있고 1백 38명의 회원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 오프라인 모임이 뜸하긴한



鄭 景 華

(국악99 03)

국립극장 어린이창극단장

두 달에 한번 꼴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30대 중반이 넘으신 선배님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20대 중·후반 동문들입니다.

대부분의 모임은 녹두거리에서 이뤄지지만 가끔 영화, 연극 관람 등의 문화 행사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화학을 벗어나 활동한 적이 많지 않아 이 모임이 저에게 소중한 곳이 되고 있습니다. 다 단과대 출신들과 어울려 보면 각 단과대별 특성도 느끼게 됩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들이 많기 때문에 심시원만 돈을 건여 음식값이나 공연비 왕을 내고 있는데, 이런 모임이 더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선배님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모교 사랑은 동창회비 납부로

〈이사: 2004년 9월 2일~2004년 10월 5일, 일반: 2004년 9월 3일~2004년 10월 5일〉

상임이사

△韓相宇 음대동창회장=20만원
△吳元錫 SCS동창회장=20만원

특별찬조

△朴鄭貞(전화55-58)=500만원

평생회비

〈이사 50만원〉 △강광연 공대원
△권기득 공대원 △권문식 공대원
△김상희 법대원 △김성우 치대원
△김시중 문리원 △김재준 법대원
△박영진 연대원 △김재준 사대원
△김홍국 상대원 △나광자 음대원
△김정만 공대원 △박우범 공대원
△배재호 상대원 △백상호 의대원
△송득환 법대원 △심인섭 의대원
△원우연 법대원 △유인영 공대원
△유형래 의대원 △윤우서 공대원
△윤희철 의대원 △이규상 상대원
△이규상 상대원 △이성대 상대원
△이일손 안대원 △이재식 법대원
△이필우 의대원 △이형지 상대원
△이호웅 사대원 △임태희 경영원
△김희문 법대원 △장삼진 공대원
△최종익 법대원 △최명애 간호원
△최흥민 공대원 △탁갑관 상대원
△권종민 공대원 △한광수 치대원
△한학신 사대원 △홍순언 의대원
△황주철 사대원 △황창하 상대원
〈일반 20만원〉 △강영식 법대원
△강남주 SCS원 △강민성 사대원
△강수영 의대원 △강승진 사대원
△강신욱 법대원 △강종구 법대원
△경상원 공대원 △계정성 농대원

△고영숙 가대원 △곽병두 미대원
△곽준희 미대원 △곽중익 AMP원
△권명희 분리원 △권상범 AMP원
△곽광필 농대원 △권석만 사대원
△크로이워 AIP원 △국위원 법대원
△권인하 인문원 △기창돈 공대원
△김현 치대원 △김광준 공대원
△김근수 경영원 △김기수 사대원
△김기영 ACP원 △김도현 대원
△김동태 AMP원 △김두경 AIP원
△김득식 AMP원 △김명기 치대원
△김미영 미대원 △김병주 공대원
△김상구 문리원 △김상근 공대원
△김삼현 법대원 △김석연 치대원
△김석현 상대원 △김성준 농대원
△김성재 대원 △김성재 사대원
△김신형 법대원 △김연수 경영원
△김영관 치대원 △김영길 의대원
△김영식 농대원 △김영수 사대원
△김영우 법대원 △김영철 법대원
△김외수 AMP원 △김용수 문리원
△김운하 HPM원 △김재근 공대원
△김재범 공대원 △김재준 의대원
△김정원 가대원 △김종민 AMP원
△김진구 사대원 △김지희 의대원
△김찬일 상대원 △김찬희 SCS원
△김창원 치대원 △김현환 공대원
△김철은 AMP원 △김태성 공대원
△김태영 공대원 △김학준 공대원
△김희영 공대원 △김현진 공대원
△김형중 공대원 △김희동 AIP원
△김희숙 사대원 △남정환 농대원
△남중수 경영원 △노무수 공대원
△노홍준 SCS원 △류길자 사대원
△노윤종 공대원 △문영실 가대원
△문윤공 AMP원 △문홍수 법대원
△민선식 사대원 △박경서 문리원
△박경진 의대원 △박대용 AMP원
△박동영 사대원 △박문영 법대원
△박문희 음악원 △박석관 사대원

△박석은 자연원 △박선주 미대원
△박성화 농대원 △박성호 AMP원
△박세화 공대원 △박순호 AMP원
△박승규 공대원 △박영귀 의대원
△박요원 미대원 △박재길 농대원
△박재일 공대원 △박종일 공대원
△박종수 의대원 △박창원 농대원
△배동진 법대원 △배정숙 미대원
△백정출 AIP원 △백만기 공대원
△백석현 경영원 △서경희 가대원
△서광범 공대원 △서광원 농대원
△서상교 농대원 △서재찬 문리원
△서준원 공대원 △서현중 치대원
△서형래 사대원 △성봉주 사대원
△성재경 공대원 △손병기 자연원
△손원정 문리원 △손효원 공대원
△송경원 AMP원 △송영기 의대원
△송우철 공대원 △송진환 공대원
△신봉준 공대원 △신양호 공대원
△신유하 공대원 △신현두 공대원
△심부락 AMP원 △안병근 법대원
△안왕성 AMP원 △안장순 AMP원
△양문철 치대원 △양상덕 치대원
△양승목 사대원 △양정원 AIP원
△염영진 문리원 △염돈재 간호원
△오지연 사대원 △오왕순 간호원
△오현섭 농대원 △우성규 문리원
△우효섭 공대원 △원상봉 대원
△유박식 농대원 △유상운 공대원
△유순애 분리원 △유영철 농대원
△유태수 분리원 △유태환 공대원
△유철진 분리원 △윤기봉 ACP원
△윤병관 공대원 △윤성수 의대원
△윤용나 사대원 △윤종아 APC원
△윤정원 공대원 △이윤 AMP원
△이경삼 AMP원 △이갑숙 AIP원
△이기원 법대원 △이노영 공대원
△이동우 문리원 △이동진 AIP원
△이동훈 사대원 △이두이 농대원
△이명희 대원 △이미숙 의대원
△이성근 AMP원 △이성규 SCS원

△이상진 AMP원 △이상선 미대원
△이상준 경영원 △이상재 치대원
△이상훈 HPM원 △이세희 공대원
△이숙희 간호원 △이승철 가대원
△이승택 안대원 △이승훈 미대원
△이승주 약대원 △이연실 사대원
△이영진 공대원 △이영철 공대원
△이영관 HPM원 △이은동 공대원
△이원배 법대원 △이원재 의대원
△이익도 공대원 △이인기 AIC원
△이재봉 치대원 △이재환 공대원
△이종대 자연원 △이종복 의대원
△이종태 공대원 △이진현 사대원
△이창우 농대원 △이초식 문리원
△이현석 AMP원 △이형술 AIP원
△이희자 치대원 △이호순 공대원
△이희중 공대원 △이만섭 수의원
△임우철 사대원 △임종우 음대원
△임현준 대원 △장성대 농대원
△정영근 AIP원 △전외도 AIC원
△전재근 문리원 △전현수 자연원
△전형식 공대원 △정동배 AMP원
△정명세 문리원 △정방우 상대원
△정선용 농대원 △정성진 공대원
△정성복 법대원 △정수원 공대원
△정사제 SCS원 △정여철 가대원
△정하연 의대원 △조기성 치대원
△조기재 사대원 △조석준 사대원
△조성철 공대원 △조소연 사대원
△조양호 공대원 △조영규 음악원
△조원호 AIP원 △조재경 미대원
△조환용 AMP원 △조민수 공대원
△주미희 치대원 △주한규 공대원
△차정호 경영원 △차운 법대원
△채호식 공대원 △전희원 사대원
△최광주 ACP원 △최금자 치대원
△최기원 AMP원 △최서영 HPM원
△최송희 법대원 △최수일 상대원
△최양숙 음대원 △최정규 사대원
△최정이 가대원 △최정원 음악원
△최태수 AIC원 △최재준 AMP원
△최태범 공대원 △최태근 치대원
△한기호 의대원 △한두이 AMP원
△한상훈 공대원 △한정길 법대원
△한종식 AMP원 △한택수 수의원
△함정호 공대원 △허홍 상대원

이 사

◆인문대 △은후준원
◆사회대 △김기영원 △박찬일원
◆자연대 △박영익원
◆간호대 △이종자원
◆공대 △김인규원 △김경식원
△김상주원 △김원일원 △남근원
△박태형원 △인재효원 △오영석원
△이근도원 △이순범원 △이순주원
△이정인원 △이종훈원 △최환환원
◆농생대 △김구용원 △신동수원
△이내수원
◆문리대 △김동선원 △민영기원
△박성표원 △박문경원 △박재일원
△송기중원 △오재화원 △유인택원
△이성원원 △이정수원 △이준희원
◆미대 △조성환
◆법대 △강재삼원 △강홍기원
△공영규원 △박현순원 △서성식원
△이강현원 △이규환원 △이인표원
△이창수원 △원태수원 △정대관원
△최광선원 △최연희원 △최영도원
△최운상원 △황인행원 △황진호원
◆사대 △박광상원 △안문천원
△오석운원 △우명수원 △이건재원
△이규석원 △이상요원 △이영덕원
△이재용원 △이종재원 △최명명원
△황철수원
◆상대 △강용수원 △조현택원
△김부산원 △김원택원 △나민원원
△서영택원 △손화근원 △이우산원
△장종익원 △장정식원 △정경봉원
△조덕찬원 △조규환원 △한덕수원
△한수갑원 △홍철원
◆수원대 △구복원원 △이상현원
△조효익원
◆약대 △김영택원 △김영호원
△정영섭원
◆음대 △김문자원 △이경숙원
△이영민원 △최광호원

◆외대 △김병완(출) △백낙원(4)
◆정동현(출)
◆차대 △김규진(출) △왕일수(출)
△이재삼(출) △최성근(출)
◆보대원 △김윤신(출)
◆사대원 △안석태(출)
◆신대원 △이명화(출)
◆형대원 △강민구(출) △박상승(출)
◆정영섭(출) △최은지(출) △현경병(출)
◆ACAD △송영길(출)

일 반

◆인문대 △강현구(출) △김미희(출)
△김성환(출) △남창경(출) △박병지(출)
△박종준(출) △박승희(출) △서선렬(출)
△이규상(출) △이기희(출) △이봉연(출)
△이상규(출) △이호석(출) △장수환(출)
△장수현(출) △조은경(출)
◆사대 △김덕인(출) △강수호(출)
△김인환(출) △박승지(출) △부윤경(출)
△서진환(출) △송유철(출) △안영진(출)
△원경준(출) △이연희(출) △이두식(출)
△이석환(출) △이윤국(출) △이재동(출)
△이재정(출) △이정우(출) △장병승(출)
△정은중(출) △정인석(출) △정희환(출)
△최수영(출) △최영선(출) △최희숙(출)
△홍대식(출)
◆지대 △김호신(출) △박유나(출)
△삼준석(출) △이봉근(출) △이승용(출)
△이현의(출) △장성기(출) △전남화(출)
△최홍호(출) △최대환(출)
◆간대 △박옥산(출) △이상영(출)
△이영재(출)
◆경대 △김경원(출) △김진호(출)
△김영기(출) △김현화(출) △민승기(출)
△민영석(출) △박동윤(출) △박치우(출)
△서윤복(출) △성기준(출) △신재훈(출)
△안규환(출) △이성호(출) △최진원(출)
△최진원(출)
◆공대 △강성훈(출) △김갑진(출)
△김경진(출) △김대모(출) △김대익(출)
△김득구(출) △김동윤(출) △김선재(출)
△김세준(출) △김수현(출) △김영보(출)
△김재열(출) △김정갑(출) △김정민(출)
△김철민(출) △김한식(출) △김홍원(출)
△나정우(출) △남시도(출) △문갑성(출)

△문동호(출) △박기서(출) △박기서(출)
△박동수(출) △박원호(출) △박지민(출)
△박홍규(출) △박봉근(출) △박효선(출)
△서효준(출) △손인현(출) △송재철(출)
△신신철(출) △신홍배(출) △안 봉(출)
△안재영(출) △양상영(출) △전승호(출)
△연관희(출) △오영달(출) △윤영길(출)
△윤용일(출) △이정순(출) △이봉우(출)
△이성호(출) △이승철(출) △이영민(출)
△이용우(출) △이은우(출) △이재일(출)
△이정우(출) △이준서(출) △이유일(출)
△장은호(출) △전희상(출) △정부교(출)
△정승림(출) △정원배(출) △정재관(출)
△정재택(출) △정진수(출) △정지 권(출)
△조국상(출) △조신환(출) △조용환(출)
△지마식(출) △지재연(출) △조지철(출)
△최 부(출) △최병기(출) △최병상(출)
△최연대(출) △최원봉(출) △최경훈(출)
△최태성(출) △하상원(출) △한민수(출)
△한만교(출) △허갑수(출) △허부영(출)
△허용기(출) △홍영문(출)
◆농대 △김태형(출) △고동희(출)
△고시진(출) △국인석(출) △오오섭(출)
△김계명(출) △김덕년(출) △김영인(출)
△김영철(출) △김봉호(출) △김종수(출)
△류병후(출) △문양수(출) △민홍진(출)
△박봉규(출) △박영민(출) △박태식(출)
△박관규(출) △손범두(출) △송환정(출)
△신용석(출) △신광자(출) △윤종식(출)
△이병진(출) △이석봉(출) △이세연(출)
△이연근(출) △이영인(출) △이재연(출)
△이준재(출) △정경진(출) △정관철(출)
△정기식(출) △정현용(출) △최동록(출)
△최상규(출) △태용문(출) △한정식(출)
△홍인선(출) △황영자(출) △황인규(출)
◆문대 △박복록(출) △김광우(출)
△김문성(출) △김영자(출) △김동하(출)
△김한도(출) △도충렬(출) △박영애(출)
△박인선(출) △박정무(출) △백준갑(출)
△손준조(출) △송소영(출) △신삼중(출)
△신소석(출) △신진순(출) △안정선(출)
△양서영(출) △은준철(출) △유병수(출)
△이근수(출) △이민호(출) △이성규(출)
△이승규(출) △이신영(출) △이종복(출)
△이진국(출) △임동태(출) △전병하(출)
△최선영(출) △한재근(출) △한철순(출)
◆미대 △김재철(출) △김정현(출)

△박상희(출) △서영숙(출) △이계인(출)
△이상순(출) △진상철(출) △정일택(출)
◆법대 △김민형(출) △김찬우(출)
△권영준(출) △김경선(출) △김기원(출)
△김기원(출) △김동진(출) △김부자(출)
△김의관(출) △김이수(출) △김재경(출)
△김재철(출) △김정국(출) △김종성(출)
△김주평(출) △김종준(출) △김진수(출)
△김택수(출) △김명우(출) △김영림(출)
△김홍명(출) △병관식(출) △분홍수(출)
△박상길(출) △박상문(출) △박인룡(출)
△박준수(출) △박정호(출) △백은환(출)
△손영재(출) △신도환(출) △안재식(출)
△오영진(출) △오영환(출) △유동렬(출)
△이 명순(출) △이승우(출) △이재정(출)
△이희복(출) △정석국(출) △전 병(출)
△조용국(출) △정 열(출) △정경호(출)
△정영대(출) △정재숙(출) △정은희(출)
△홍영숙(출) △홍준선(출) △최규철(출)
△최승민(출) △최신석(출) △최문경(출)
△최재호(출) △최정영(출) △홍성무(출)
◆사대 △강순기(출) △강문주(출)
△강규중(출) △김 인(출) △김류수(출)
△김신식(출) △김영국(출) △김정준(출)
△김종기(출) △김태영(출) △김하현(출)
△김현민(출) △노지영(출) △박상규(출)
△박주하(출) △박진규(출) △방수동(출)
△배정호(출) △부부영(출) △설경수(출)
△손영복(출) △송병욱(출) △송여진(출)
△송재숙(출) △신동로(출) △어 영(출)
△여태철(출) △유근봉(출) △윤경식(출)
△이계형(출) △이석규(출) △이승욱(출)
△이연환(출) △이문상(출) △이은희(출)
△이종승(출) △이종국(출) △이혜아(출)
△이병선(출) △정대영(출) △정덕자(출)
△정성호(출) △정은식(출) △정진표(출)
△정대범(출) △전위교(출) △최경식(출)
△최현규(출) △홍지현(출) △황영남(출)
◆사대 △고성규(출) △김병덕(출)
△김재진(출) △김하두(출) △백영덕(출)
△사규상(출) △송필호(출) △유민조(출)
△유영훈(출) △유용진(출) △이안옥(출)
△이종각(출) △이홍세(출) △이환영(출)
△전재숙(출) △전종환(출) △조치현(출)
△조용원(출) △한정복(출)
◆생대 △김영자(출) △김경숙(출)
△김경향(출) △김효순(출) △민복원(출)
△민계주(출) △유정자(출) △윤혜원(출)

△이 승선(출) △이창숙(출) △정경명(출)
△홍혜자(출)
◆수외대 △곽기종(출) △권순기(출)
△김 진(출) △박영수(출) △신문근(출)
△유용근(출) △임정옥(출) △조경숙(출)
◆외대 △김광우(출) △김민찬(출)
△김병식(출) △김장숙(출) △류한호(출)
△박승무(출) △박우현(출) △손세은(출)
△신현호(출) △우재연(출) △윤부석(출)
△유성희(출) △유여상(출) △이도경(출)
△이상규(출) △이희희(출) △정인 조(출)
◆음대 △계은희(출) △김동수(출)
△김미경(출) △김세희(출) △문명자(출)
△박병준(출) △박예경(출) △박정배(출)
△사기영(출) △안준환(출) △양태숙(출)
△유승연(출) △이교신(출) △임현숙(출)
△장해라(출) △장예숙(출) △정은희(출)
△홍영숙(출) △홍준선(출)
◆의대 △강원직(출) △김세연(출)
△김수남(출) △김애성(출) △김희섭(출)
△박근수(출) △변정희(출) △조세영(출)
△신진수(출) △윤여규(출) △이강진(출)
△이동신(출) △이희자(출) △전종환(출)
△장병영(출) △장용희(출) △정은미(출)
△수영식(출)
◆치대 △김광수(출) △김영태(출)
△김종성(출) △박병덕(출) △박영길(출)
△사기환(출) △송병욱(출) △윤성환(출)
△우건희(출) △이교인(출) △이민희(출)
△이태영(출) △이태연(출) △임병재(출)
△임형우(출)
◆대원 △강희화(출) △김형국(출)
△윤종우(출) △정목동(출) △조현태(출)
△황철웅(출)
◆경대원 △구자영(출) △김연식(출)
△오현철(출) △이영희(출)
◆고대원 △정승윤(출)
◆보대원 △김은주(출) △민옥녀(출)
△유무현(출) △정경수(출)
◆형대원 △이상민(출) △이해재(출)
△전철수(출) △정준석(출) △최상철(출)
◆원대원 △강원직(출) △송정복(출)
△이종수(출)
◆AMP △강광식(출) △김승열(출)
△김현희(출) △김희경(출) △노경성(출)
△박자숙(출) △서영태(출) △신명원(출)
△신명규(출) △연재원(출) △유길상(출)

△윤희진(출) △이내훈(출) △이윤근(출)
△이정일(출) △이 춘식(출) △현영수(출)
◆AP △김인옥(출) △김해선(출)
△김홍규(출) △박종호(출) △서인석(출)
△이성호(출) △이왕열(출) △원종환(출)
△전영수(출) △조한나(출) △조홍규(출)
△현인석(출)
◆ACAD △문인갑(출) △원용인(출)
△이광리(출) △유형진(출) △최상호(출)
◆ABP △김남석(출) △허 영(출)
◆SGS △변봉주(출) △이영태(출)
△차진태(출)
◆CHCN △이영연(출)
◆APC △고종석(출) △곽이배(출)
△김미경(출) △박도형(출) △박대순(출)
△박승갑(출) △박춘식(출) △한성환(출)
△오득환(출) △윤병근(출) △이성호(출)
△이영성(출) △정대훈(출) △최병하(출)
△홍경표(출)
◆H PM △김인정(출) △권영진(출)
△김복희(출) △김환준(출) △박무열(출)
△박무현(출) △박진표(출) △박대순(출)
△방금사(출) △선대남(출) △윤기남(출)
△윤석모(출) △이진화(출) △이상민(출)
△이영관(출) △이재현(출) △이학현(출)
△이한규(출) △장성호(출) △정영남(출)
△조영수(출) △한준철(출) △한홍서(출)
△최영희(출)
◆AM PP △정강삼(출) △이영수(출)
◆AC △김주열(출) △서철모(출)
△최세근(출)
◆AM FR △태명섭(출) △백두창(출)
△송종근(출) △유승민(출) △이동욱(출)
△한봉수(출) △한정기(출) △호재국(출)

분 당 금

◆재미통화 10,000\$
◆오시지리 1,000\$
◆천진지부 500\$
◆태국지부 500\$
월 계 : 19,300,000원
공생회비 : 77,200,000원
인 회 비 : 50,000원
총 계 : 377,551,332원
+15,955\$